



**[해설]**  
금융, 플랫폼이 되다  
카카오뱅크  
715일만에 1000만 고객  
03



Economy

코스피	2086.66 (0.00)	코스닥	681.17 (0.00)
금리 (우대 3년)	1.42 (+0.01)	환율 (원/달러)	1179.20 (+5.70)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JY, 비상계획 전격 가동

일규제 품목 긴급물량 확보한 듯 DS·디스플레이 경영진 긴급소집  
수급현황, 대응방안 등 중점 논의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진두 지휘 하에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세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 반도체 부문인 DS와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 경영진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DS 부문장인 김기남 부회장과 메모리사업부장 진교영 사장, 시스템LSI 사업부장 강인엽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급 현황과 영향,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제재가 확대되거나 장기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을 주문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TV 등 다른 주력 분야에도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에 미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김재용 기자 juk@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단기 현안 대처뿐 아니라 큰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날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3개 품목 긴급물량을 확보했다는 일본 출장 성과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고순도 불산(HF) 등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에서는 이번 물량이 급한 불은 끌 정도의 수준이며, 현지 생산업체들로부터의 직접 수입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발효 전통에 시도입... 맞춤형 영양 제공시대 열린다

# 푸드테크, 바이오 2배 9300조

### 2019 푸드테크 포럼

식품 R&D 광범위, 개방형 혁신 필요  
음식의 전통깊은 韓, 잠재력 높은 시장

먹거리의 미래 가치가 8조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려 9342조원,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가치 추정치(5000조원)보다 2배 가까이 크다.

동력은 음식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푸드테크'다. 의사들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약 대신 대체육(식물성 고기)과 식물성 계란을, 당뇨 환자엔 당을 낮춘 쌀을 처방한다. 밥이 약이 되는 시대다. 파장은 크다. 인간을 먹이기 위해 잔인하게 도살되던 가축들은 초원으로 나가고, 축사가 뿔어내던 이산화탄소는 줄어든다. 사람도, 동물도, 지구도 모두 '지속 가능한' 세상, 푸드테크가 꿈꾸는 미래다. <관련기사 L7, L8면>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푸처 푸드테크 코리아'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음식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며 "꽤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리콘밸리 푸드테크 투자 전문기업 피프티이어스(Fifty Years) 창업자 세스 배넌 대표는 "사람들은 가축을 식용으로 사육하지 않을 것이고, 비만과 고혈압 등 질병의 근원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과 설탕을 교체할 것"이라며 "미생물, 바이러스, 단백질 등 유전체가 개인화돼 개인 맞춤형 영양을 제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은 "30조원의 구매력을 가진 밀레니엄 세대는 음식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검색하고 영양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며 "먹는 행위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다. 이 흐름은 향후 몇 십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푸드테크의 발전을 위해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식품과 결합하는 기술은 광범위하다.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해 배양육을 만들고, 버섯과 콩의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 고기, 달걀, 우유를 만든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데이터를 분석

하고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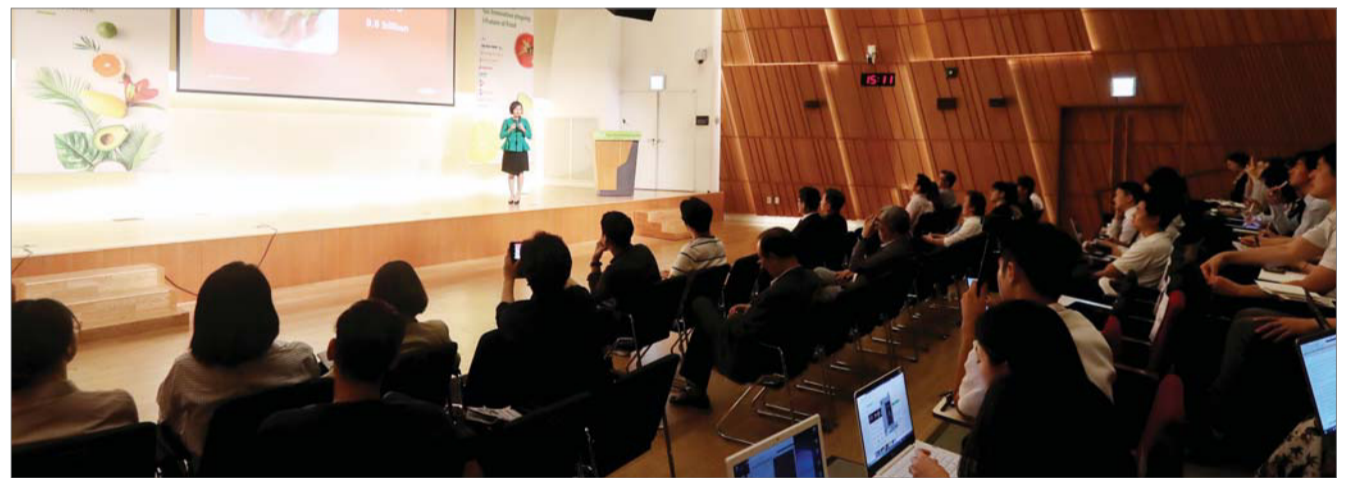
윤호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은 "식품 연구개발(R&D)은 화학뿐 아니라 미생물, 물리학까지 분야가 광범위해 문제를 혼자 풀어 나가기 정말 어렵다"며 "식품 산업이야말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음식에 대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국은 푸드테크의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신디 오우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국가인 한국은 음식의 신선도, 영양정보, 건강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맛있고 좋은 식음료에 대한 젊은 세대의 구매욕구가 큰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세스 배넌은 "한국은 된장과 김치와 같이 발효 음식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다 IT는 물론 로봇,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기술 발전이 빠른 국가"라며 "이런 기술들을 식품 제조에 적용하고 음식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푸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에 참석해 '미래 식품시장의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日 수출규제 영향분석 제각각

## 정계·학계 “국내산업 큰 피해” vs “외교적 해결 필요” 관련 업계

정재계가 일본 수출 규제를 두고 제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 규제품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우려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전문가가 94%가 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관련 기업인과 학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수출 제재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62%나 있었다.

앞서 환경연은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에서 일본 무역 규제에 따른 한국 GDP 하락이 2.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측 피해는 0.0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59.9%가 일본 수출 규제에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수출규제 피해를 우려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세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행동에도 나섰다.

반면 정작 실제 피해자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LG디스플레이 강인범 부사장은 최근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반도체에 비해 크지 않다고, 이미 대체제를 찾아 테스트 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우려가 실제보다는 다소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출 규제 이후에도 주력 품목인 DR램에 쓰이는 소재는 정상 수입된 영향도 있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극자외선(EUV)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감광제)는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지만,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만큼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밖에는 대부분 대체재를 거의 마련한 상황"이라고 낙관했다.

업계 전망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수출 규제 품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V와 올레드 패널 생산에 쓰이는 소재임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같은 소재라도 실제 품목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수출 규제가 무조건적인 제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배경도 있다. 일본은 한국을 주요 소재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뿐, 무역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철차를 끝낸 후에도 수출을 규제할 때 문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의도를 담은 주장에 더 주목이 쏠리면서 오히려 실제 업계가 처한 상황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세계 총수들을 불러모아 '쇼통'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일 정부가 대립하면서 발생한 일임에도, 재계를 끌어들이며 기업들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했다는 얘기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피해를 과장해 국내 반도체 역량을 폄하하는 움직임도 업계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지 소재 업체보다는 금융권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 은행과 손잡은 이통사, 블록체인으로 개인신원 증명

SKT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MOU  
KT 기기체인 공개, 기가스텔스 선봬  
LGU+ 소프트뱅크·파이스톤과 MOU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동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 발판을 위한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와 협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고삐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과 손잡고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SK·LG·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이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한 개인



이동통신 3사 KT 미래플랫폼사업부부장 사장이 5G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KT

정보와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고 투명한 신원증명이 가능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오랜 기간 가장 보안성이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통신 3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부한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한준성 부행장,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황원철 상무, 코스콤 미래성장본부 김계영 본부장,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Unit장 오세현 전무,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전무, KT 블록체인비즈니스센터장 서영일 상무, 삼성전자 서비스기획그룹장 김주완 상무(왼쪽부터) 등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7개 참여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SK텔레콤

노하우를 바탕으로 '녹스(Knox)'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신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생체인증과 함께 앞으로의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통합 온라인, 전자계약 위·변조 방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해 글로벌 사업자와 협업하거나 자체 솔루션을 내놓는 등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각 사별로 SK텔레콤은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19'에서도 이치텔레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 사업에 뛰어들 바 있다. 국경이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겠다는 밑그림이다. 양사는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상용화, 활성화되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간편한 신원 확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며, 실증 사례를 도출하고 있다. KT는 지난 4월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기체인'을 공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선보인 바 있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

에게만 IoT 단말의 IP 주소가 보이는 기술이다. KT 기기체인을 통해 고유 ID를 저장하고, 1회용 상호인증 접속토큰을 발행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안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글로벌 사업자들과 손잡고 해외결제 서비스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만 파이스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결제 시스템 CP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CCPS는 통신사간 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한 서비스로, 각 통신사가 입자는 한국·일본·대만 등 해외를 방문했을 때 해당 통신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해외결제가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신뢰 인터넷을 제공할 혁신적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상용화하면 통신사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단순 전송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에서 가치를 교환하는 사업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홍민영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 금리인하 임박... 18일 금통위 주목

기준금리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는 3분기 중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줄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0%대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성장률 등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7월이나, 8월이나 등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한은의 결단만이 남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8개월째 동결해 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수출이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10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기대감은 높아졌다.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때가 아니다"며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그런 그가 "대의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김희주 기자 hj89@

## 전문가 94% "日 수출제재, 韓기업 피해크다"

전경련, 日 전문가 50명 긴급설문

70% "수출제재 장기화 될 것"  
대응 방법 48% '외교적 대화'

일본 전문가 대부분이 일본 수출제재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해 54%는 '매우 높다', 40%는 '약간 높다'고 응답했다. 90% 이상이 피해가 크다고 대답한 셈이다.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대답도 62%에 달했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70%나 됐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이후에도 제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도.

전경련 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가 48%로 가장 많았다.

부품과 소재 국산화도 30% 지지를 받았다. WTO 제소와 2차 보복 대비는 6%에 머물렀다.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중론인 만큼, 외교적 대화가 가장 현실적인 조치인 셈이다.

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경단련과의 경제협력 채널인 '한일경제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 日, 수출규제 전 對韓 무역 이미 축소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對) 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농업 분야에도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달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국 산업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체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 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

산업·외교부, '2018 무역장벽 보고서' 5년간 韓제품 50%에 '반덤핑 관세'

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

일본기업 3곳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돼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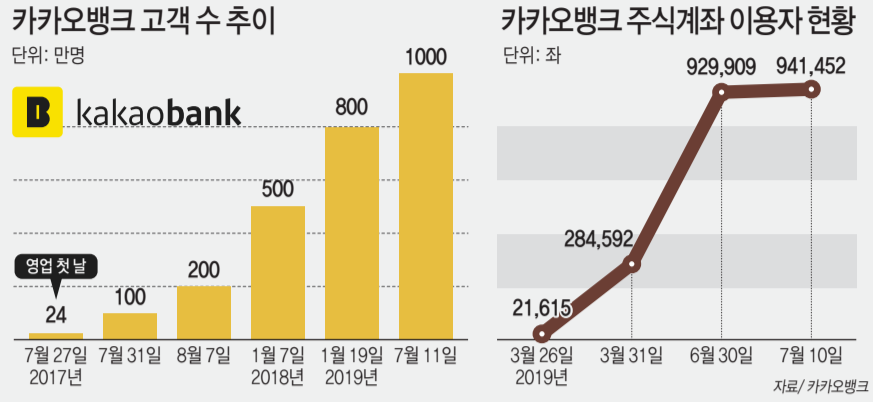
/석대성 기자 bigstar@

# 출범 715일에 1000만 고객... 모바일 금융장터 '우뚝'

## 금융, 플랫폼이 된다

### <상> 카카오뱅크

금융의 판이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이변이 일어났다.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 경쟁력으로 회자되던 한국에서 인구규모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고객 수 1000만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왔다. 카카오뱅크다. 해외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생활을 바꿔놓을 디지털 금융의 변화를 살펴본다.



하루 평균 1만4000명 고객 유입  
중 위뱅크 다음으로 고객수 많아  
주식계좌 개설 플랫폼 저력 증명

카카오뱅크 고객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출범한 지 단 715일 만이다. 기존 시중은행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모바일 뱅킹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지만 여전히 하루 1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카카오뱅크로만 몰렸다.

카카오뱅크 성장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13억명의 인구가 버티고 있는 중국의 위뱅크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은행 진출이 활발했던 일본도 1위인 라쿠텐의 고객수가 700만명에 불과하며, 유럽에서는 고객수가 400만명을 넘은 곳은 찾기 힘들다. 국내 인구나 금융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1000만 고객의 의미는 또 있다. 1000만명은 플랫폼 사업의 기반으로 충분한 숫자다. 이미 플랫폼으로서의 저력도 증명됐다. 주식계좌서비스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지 않아 100만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 전 세계 '인뱅' 2위

1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22시 25분을 기점으로 계좌개설 고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6주적금·모임통장... 흥행 릴레이

카카오뱅크의 흥행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함을 넘어 주요 고객인 젊은 층의 수요를 만족시킨 상품과 서비스다.

'26주 적금'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26주 동안 매주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씩 많아지는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이다. 금리로만

보면 연 1.9%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저축 목표에 도전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SNS로 공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작년 6월 26일 출시한 '26주 적금'은 6개월 만에 누적 계좌 개설수가 110만좌를 넘어섰고, 지난 10일 기준 273만4677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게임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에 대한 소셜니즈에 본질적으로 접근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모임 회비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모임통장 역시 지난 10일 기준 이용자는 285만1611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플랫폼으로 재탄생

1000만 고객은 단순히 새로운 기록을 넘어 플랫폼 가능성도 열어줬다. 상품의 흥행을 위해 다른 플랫폼을 찾아야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자체로 다른 생활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

카카오뱅크의 모바일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시작은 주식계좌 개설이다. 주요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과 시너지를 낸 상품이기도 하다.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1~2분 이내에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존 계좌 정보를 활용해 고객 입력사항이나 절차를 최소화한 덕분이다.

지난 3월 25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에 개설 계좌수가 30만좌에 달했으며, 지난 10일 기준 94만1452계좌로 집계됐다.

연계대출 서비스에는 현재 5개사가 참여 중이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별도의 정보입력 과정 없이 제2금융권의 대출가능 금리와 한도에 대한 조회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제2금융권에 접촉하는 것보다 금리나 한도조건이 유리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日 수출규제 피해 中企에 1000억 지원

### 경영안정자금·컨설팅사업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컨설팅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대응TF'를 가동한 바 있다.

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해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는다. 접수 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및 범정부 TF는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8월부터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한다.

일본수출 규제 피해기업은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에서 제외하고,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에 예외를 두는 등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당초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경안으로 1080억원 제출한 상태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사업'도 진행한다. 컨설팅 사업은 일본 피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신규 사업이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처 확보 등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추경안 36억원 제출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 및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며 "이번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참좋은여행이 참좋은 당신께**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사람,  
언제 불려도 기분 좋은 그 이름,  
**'고객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많은 누군가의 **참좋은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주인공**이자 **주인**으로 바라보는  
**참좋은여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2018년 10월 10일(수) 100대 우수기업, 100대  
4년 연속 가장 친절한 여행사  
항공, 여행사 관련 전문 분야 100대 우수기업

지점 부산 051-400-5900 / 대구 053-440-7300  
대전 042-280-3100 / 광주 042-606-8300

대표번호 1588-7557 참좋은여행

# 市금고 빅뱅 예고... 지방은행 안방 守城 ‘노심초사’

12월31일 5개 광역단체 계약 만료 시중銀, 지방銀보다 年출연금 3배 배점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제기 금감원, 출연금 적정 산정 여부 조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출연금(협력사업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개선했지만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금력과 유리한 금리를 내세우면 승자는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출연금 산정여부를 조사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시,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총 5개의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12월 31일로 시도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는 오

〈2019년 만기 지방자치단체금고 현황〉

자치단체(광역)	1금고	2금고
대구	본점	대구 NH농협
울산	본점	경남 NH농협
충남	본점	NH농협 KEB하나
경북	본점	NH농협 대구
경남	본점	NH농협 경남

/자료=행정안전부

는 9월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10월 시도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타은행 참여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대출 등 이자이익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

홍 JB회장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시금고 선정에 앞서 자주 지역에 내려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열심히 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이, 기타 지방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과 지방은행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시도금고 은행 선정방식이 공개입찰제로 바뀌면서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방 지자체 시금고 탈환에 성공하고 있다. 출연금은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중 농협은행이 165개(68%)로 가장 많은 금고를 가지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43개(18%), 지방은행은 35개(14%) 순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세부내용을 포함한 평가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했다. 지자체 출연금 선정 시 출연금(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지자체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높였다.

기타 사항이던 자치단체 자율항목도 총 9점에서 11점으로 늘렸다. 이 항목에는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포함한다.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역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책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출연금 배점과 금리에 대한 배점이 존재하는 한 승자는 시중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중은행이 연간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방은행의 3배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시중은행의 출

연금은 총 680억원인데 비해 5대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은 228억원에 불과하다.

금리배점과 관련해서 기반지역을 바탕으로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상 출연금을 리베이트로 규정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규모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배점을 낮추는 식으로는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며 “출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연금이 필요하면 해당 은행들과 출연가능 여부를 합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웰컴저축銀, 업계 최초 ‘해외송금 서비스’

9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웰컴저축은행이 15일부터 저축은행 최초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해외송금업체 센트비(SENTBE)와의 제휴를 통해 자사의 모바일플랫폼인 웰컴디지털뱅크(웰뱅)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웰컴저축은행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면 웰뱅을 통한 외환송금이 가능하며,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송금이 가능하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책정해 9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이후 1건당 최저 3000원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송금액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 케이뱅크는 일괄 4000원, 핀크는 일괄 5000원의 해외송금수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해외송금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 세계 16개국으로 1건당 최저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웰뱅을 통한 해외송금은 16개국의 현지 은행계좌에 해당국가화폐로 환전돼 실시간으로 입금 되고, 송금



웰컴저축은행 본사 전경.

받은 수취인은 곧바로 계좌에서 출금 가능하다. 서비스 국가에 따라 ATM 기기에서 수취하거나 환전소 등에서 직접 외화 수령이 가능하며, 일부국가에서는 자택배달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이용한 고객에게 3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범위로 해외송금·수입업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이같은 규제완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점 수의 한계와 적은 방문객, 해외송금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계산에서였다. 현재까지 웰컴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송금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어린이 화폐·경제·미술교육 ‘한 눈에’

한은,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한국은행은 화폐박물관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박물관 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와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 체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반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한은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 김광수 “디지털·혁신금융·자산관리 가속화”

〈NH농협금융 회장〉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회의 “경영체질 개선 효과 실적으로”

NH농협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경영진 100여명과 함께 ‘2019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질 개선의 효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농협금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금융 활성화 ▲자산관리 역량 강화의 3가지의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상품 위주의 디지털화에서 벗어나 전략, 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 등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전략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농협금융 경영성과 분석회의’에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룹 차원의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전반적인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 활성화는 농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활성화하고, 디지털산업 중심의 혁신산업에 투자해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과 농협금융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은행·증권·자산운용의 시너지 클러스터를 더욱 단단히 결합하고,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둔화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제한 등 하반기 리스크 잠재요인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의 존재 및 성장기반의 핵심은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고객”이라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객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금융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MRI 검사·소견 없어도 보험금 받는다”

### 금감원 Q&A 치매보험금

**Q.** 치매전문에게 치매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미한 치매라서 MRI 상의 이상소견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제부터는 MRI 검사결과 등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지 않아도 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험약관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 의사가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치매라고 진단했다면 MRI 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치매전문의를 진단내용을 요구할 수 있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다수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또 병원으로부터 어떤 질병코드를 부여받았는지, 치매 관련 약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러한 보험금 지급조건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전문의의 치매진단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김희주 기자 hj89@

# 운전자 시선 추적해 사고 예방...트럭 등에 2021년 적용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 개발**  
얼굴 특징점 통해 운전자 식별  
동공 인식으로 시선까지 추적  
부주의 운전 검출 정확도 높여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운전자 동공추적과 안면인식이 가능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을 상용차에 적용해 시험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운전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시선 추적까지 가능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운전자의 안면 생체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운전 부주의 상황을 경보해주는 최첨단 시스템(DSW)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2021년부터 국내 주요 중대형 상용차종에 국내 최초로 양산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고급차와 상용차종에 한정적으

로 적용되어온 기존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운전자의 얼굴 방향과 눈 감김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눈·코·입·귀 등 특징점을 통한 운전자 식별과 동공 인식을 통한 시선추적까지 가능하게 해 부주의 운전 검출 정확도를 한 차원 높인 것으로 동종 업계 시스템 중 최첨단 제품이다. 또 이 시스템의 운전자 식별

기능은 다수의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따라 시트와 미러 자동 조절 등 개인화 기능과 연동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승용 부문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상용차에는 아예 양산 사례가 없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실내 카메라가 추출한 운전자 상태 정보를 차

속, 변속, 핸들링 등 차량의 사시 정보와 융합 분석하는데 성공하면서 한층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은 차량 실내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안면을 인식하고 졸음운전, 주의분산,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부주의 운전을 파악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선이탈, 차선침범 위험 등을 판단해 클러스터 표시와 경보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차 사고도 대폭 줄어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가 상용차종부터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상용차의 장거리 주행을 따른 부주의 운전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대형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국내에서 새로 출시되는 11m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시스템, 차선

이탈경고장치 등의 능동안전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딥러닝과 생체인식을 융합한 탑승자 센싱 기술로 발전시켜 미래차 시장도 선도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운전자인식기술에 딥러닝을 접목해 영상 기반의 모션분석과 생체인증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박측정, 음성인식과도 연계해 생체리듬을 측정하고 탑승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음주 여부를 파악하고 감정인식까지 구현하는 등 탑승자 센싱 기술을 고도화 하는 차원이다.

장재호 현대모비스 EE연구소장(전무)은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 등 탑승자 센싱 기술은 자동차가 운전자를 인식하고 이해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의미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버스 및 승용차종에도 확대 공급을 추진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 U+, 주차장 등 5G 음영지역 없앤다

디비콤과 중계기 개발, 연동 완료  
중소형 건물 중심 커버리지 구축

작은 건물이나 지하주차장 등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 음영지역이 사라지고,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중소기업인 디비콤과 5G RF 중계기와 초소형 중계기를 개발, 상용망 연동을 완료하고 중소형 건물 등을 중심으로 설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중계기는 5G 기지국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중소형 건물, 지하 주차장, 소호(SOHO) 등에 설치해 5G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R

F 중계기는 주로 중소형 규모의 건물에 설치되고 초소형 중계기는 소호 등에 적합하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소형으로 개발하고, 광전송라인 연결 없이 무선으로 기지국과 5G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RF 중계기와 함께 초소형 중계기에도 감시용 모듈을 탑재했다. 현장 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중계기의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발생시 신속한 확인과 점검,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노키아, 삼성, 화웨이 등 모든 5G 기지국 장비와 연동 가능하도록 개발돼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 포스코인터내셔널, 印尼 파푸아 의료봉사

의료진·임직원 봉사자 등 참여  
파푸아 주민 1160여명 무료 진료  
법인 설립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기업시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맞는 의료봉사를 통해 해외에서도 다양한 상생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건강한 여성재단,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팜 오일 법인이 소재한 지역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역 내 병원, 학교, 종교시설 등을 설립하고,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차별 없는 무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존중에 기반한 ‘기업시민’을 실천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고용 기회가 희박한 파푸아 지역에서 35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포스코인터내셔널 의료봉사단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현지 주민 11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 자녀 600여 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문맹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90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 인근 지역 고등학생들이 직업체험 형식으로 법인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생의 모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업시민’ 실천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국내 및 현지 의료진 30여 명과 현지 임직원 자원봉

사자 30여 명이 참여해 파푸아 주민 116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펼쳤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체 의료문화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임상부 지침 사항, 위생 관념 등 보건의료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기 사용법과 결과 판독 등 의료 교육도 병행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주민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과 협업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료 혜택을 받은 주민 수는 약 5000여 명에 이른다.

/양성운 기자



LG전자는 카페 올레드에서 팬톤사 선전 올해의 여름 컬러를 올레드 TV로 소개했다. /LG전자

## LG 올레드TV, 美서 여름컬러 체험 마케팅

뉴욕서 ‘카페 올레드’ 운영

올레드 TV가 올해 여름의 컬러를 소개했다.

LG전자는 12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미국 뉴욕에서 ‘카페 올레드’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카페 올레드는 팬톤사가 선정한 올해의 여름 컬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방문객들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 등 2019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10대로 색상을 소개하고, 커피와 차 등 음료도 제공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가 완벽한 블랙과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한다는 데 착안해 카페 올레드를 기획했다. 팬톤 컬러에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과 음식도 마련했다.

/김재용 기자

## 삼성전자, 최신 보안기술 공유

8월 20일 제3회 삼성보안기술포럼 13일까지 홈페이지서 참가 신청접수

삼성전자가 최신 보안업계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20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제 3회 삼성보안기술포럼(SSTF)’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

가 신청을 받는다.

보안기술포럼은 보안기술 분야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 보안 포럼이다. ▲보안 기술워크숍 ▲해킹체험존 ▲오픈테크 토크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삼성리서치 시큐리티팀 안길준 팀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다. 미국 조지아공대 김태수 교수와 애리조나주

립대 루어위 왕 교수, 티오리 창업자인 해커티프 PPP 박세준 대표 등이 강연을 이어간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리서치 연구와 통찰력을 공유하는 세션도 추가했다. 해킹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해킹체험존도 운영한다.

보안 기술에 관심있는 학생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오픈 테크토크’도 마련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자리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 베뉴 주행사진.

## 선택·집중... 당찬 막내가 왔다



### 현대차 소형SUV '베뉴'

내부, 실용성 초점 심플한 디자인  
가속·날렵함 등 주행성능 뛰어난

FCA 등 첨단 안전기술 기본적용  
가격 트림따라 1473만~1799만원

“소형 SUV라고 무시할 수 없겠네.”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막내 '베뉴'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베뉴는 현대차 SUV 라인업에서 크기가 가장 작지만 차량 곳곳에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다. 현대차가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현대차가 지난 11일 진행된 시승 행사에 참석해 베뉴를 직접 만나봤다. 시승 구간은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에서 여주시 강변유원지까지 왕복 145km 구간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은 작지만 단단하다는 느낌을 준다. 네모 모양의 주간주행등은 베뉴의 고유함으로 다가온다. 쌍용차 티볼리(1590mm)나 형님 격인 코나(1550mm)와 전고(높이·1565~1585mm)가 비슷하다.

내부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복잡함보다는 심플함을 담고 있다. 글러브박스 위쪽에 위치한 작은 수납 공간은 스마트폰 등 간단한 짐을 올려둘 수 있

다. 내부 인테리어의 배치가 잘 돼 있고 정교하다. 다만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400만원대로 출시된 만큼 구성과 부품, 소재 등에서 원가절감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주행 성능은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나다. 초반 가속력과 고속 구간 등에서 불편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베뉴는 1.6 가솔린을 탑재했다.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에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맞춘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다. 최고출력 123마력에 최대토크는 15.7kg·m이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으니 빠르게 치고 나가면 날렵한 움직임을 보였다.

고속주행도 만족스러웠다. 평일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에 힘을 주자 순식간에 150km를 넘겼다.

베뉴의 복합연비는 13.3km/L(17인치 타이어 기준)로 동급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실제 시승에서는 15.4km/L로 뛰어난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뉴의 가장 큰 매력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 적용해 주행중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또 여성 고객을 위한 배려로 적외선 무릎 워머, 프리미엄 스피커,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반려동물 패키지 등 다양한 편의장비도 갖추고 있다.

베뉴의 가격은 트림에 따라 1473만~1799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 열사의 땅, 두산 굴착기의 힘

사우디 등 잇단 대규모 수주로  
중동 점유율 2배 성장, 13.4%

중대형 굴착기, 대형 휠로더 등  
상반기만 총 460대 장비 판매  
이라크 등 다른국가도 판매 주력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 상반기 중동 건설기계 시장점유율 13.4%(5월 누계)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초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Aramco)의 공식 협력업체인 아라비안 머시너리에 휠로더 20대 판매를 시작으로, 사우디 여러 건설업체들에 19~52톤급 중대형 굴착기 70여 대를 판매하는 등 대규모 계약들을 체결했다.

대형 장비 수요가 드물었던 오만에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들이 중동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서도 대형 휠로더 13대의 공급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동시장에서 올 상반기에만 총 460여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매출을 달성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걸프협력회의(GCC)에 속한 국가 외 다른 중동 국가에서의 판매 기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시장에서 정부 및

일반 고객들로부터 공급계약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동 내 정치경제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현지 영업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맞춤형 신제품으로 GCC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주변국 영업망도 강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소비자 신뢰회복 나선 아우디폴크스바겐

# 3년간 국내 사회공헌활동에 100억 쏟아

모빌리티 인재양성 '투모로드스쿨'  
서울 중심 연내 22개 학교서 진행

아우디폴크스바겐이 사회공헌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 판매실적이 저조했던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투모로드스쿨'의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시연하며 미래 인재 양성과 하반기 실적 향상에 대한 포부를 보여줬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2일 국내 자동차 관련 미디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투모로드스쿨'을 시연하며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진행된 '투모로드 미디어 스쿨'은 퓨처-모빌리티 인재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투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모로드스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 총괄 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투모로드스쿨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발표 등을 함께 진행했다.

투모로드스쿨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서울특별시, 한국사회투자 그리고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 전개

하는 활동으로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미래 이동수단 기술 관련 교육이다. 자율학기제와 연계된 전통화 및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프로그래밍(코딩)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그룹 총괄 사장은 “투모로드스쿨 등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2개 학교에서 진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판매 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 총괄 사장은 “다음 주부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 사전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14번 탑승게이트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상하이 첫 편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이 함께 신규취항을 기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티웨이항공

## 이스타항공 인천~상하이 정기노선 첫 운항

국적사 LCC 최초 취항  
기존사보다 최대 40% 저렴

이스타항공이 인천-상하이 신규 취항식을 갖고 첫 운항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하이 정기편 취항식' 행사를 열었다.

이스타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은 지난 5월 국적사 중국 운수권 배분 이후

첫 번째 취항 노선이다. 기존 대형항공사(FSC) 대비 평균 20~40% 저렴한 가격으로 운임을 책정하고 시종별 탄력적인 운임을 제공해 고객들의 항공편의와 수요 증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인천-상하이 노선의 운항일정은 매일 주 7회 운항으로 출국 편(ZE871)은 오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기준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 오후 10시 30분 도착하며, 귀국편(ZE872)은 오후 11시 30분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정연우 기자

## SK인천석화, 국내 최고 클린공장 만든다

안전·보건 환경경영 500억 투자  
오염 배출 저감시설 등 추가 설치

SK인천석유화학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벨런스' 실천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 클린공장 구현을 선언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안전과 보건 환경경영(SHE)에 올해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벨런스는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자체 평가에서 '마이너스' 판정을

받은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를 '플러스'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SK인천석유는 2006년부터 SHE 분야에 3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연간 250억원 꼴이다. 올해는 두배인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정시설도 최적화한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기보수 기간 동안 배연탈질설비(SCR)를 추가 설치해 대표적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연간 83톤 이상 감축한다. 열교환 최적화 및 원유정제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연평균 전체 연료 사용량의 2%를 절감한다. 온

실가스(CO2) 배출량은 연간 약 3만 6000톤 감축한다.

SK인천석유는 SK로 인수된 2006년부터 친환경과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해 왔다. 2018년 기준 먼지는 2008년 대비 97% 감소했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2006년 대비 각각 84.7%, 69.3%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조 6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신설 공장이 추가로 가동 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오염물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SHE 관리 시스템 강화 및 집중투자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 독일은 자동차 |

| 이탈리아는 콜로세움 |

| 프랑스는 에펠탑 |

#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 '배당' + '수익' 두 토끼... 글로벌펀드 인기몰이

국내펀드 투자할 곳 마땅치 않아  
평균 수익 1% 안돼... 해외는 11%

# 직장생활 5년차 김씨는 연 초 증권사 직원의 추천을 받고 글로벌자산투자펀드에 가입했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꾸준한 배당이 매력적이어서다.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글로벌자산펀드를 선택한 건 신의 한 수"라고 말한다.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동안 14%가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글로벌자산투자펀드가 인기몰이 중이다. 국내에서 투자할 상품이 마땅치 않아서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 이달 11일까지 국내에 설정된 75개 해외자산배분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10%로 집계됐다. 해당기간 국내자산배분 펀드 수익률(0.83%)은 물론 국내주식형펀드 수익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해외자산배분 펀드〉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순자산	연초이후
한화글로벌리얼에셋혼합자산자(혼합-재간접)C-C-f	한화자산운용	2017-12-29	426	14.48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주흥-재간접)(A)	블랙록자산운용	2018-06-01	223	14.06
삼성미국코어밸런스[자]H(주흥)cf	삼성자산운용	2013-10-02	1,253	13.82
ABL알리안츠월지급인컴엔그로스[자](주흥-재간접)(H)A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2013-09-24	198	13.28
DB글로벌자산관리솔루션[자](H)(주흥-재간접)C-A	DB자산운용	2016-12-08	163	13.19

\*설정액 50억 이상 펀드, 7월 12일 기준.

(단위: 억원, %)  
/자료=펀드평가사 펀드스케어

률(0.12%)을 크게 앞섰다.

◆'수익+배당' 글로벌자산배분 펀드

해외자산배분 펀드는 '목회수익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최근 1년 수익률은 2.85%, 3년 수익률은 23.11%다. 5년을 투자했다면 28.88%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국내자산배분 펀드의 3년 수익률은 1.15%, 5년은 2.73%다.

꾸준한 배당 역시 매력적이다. 펀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세후 4~5% 배당률을 약속한다.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 또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방향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호조

연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글로벌리얼에셋펀드'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도로, 유틸리티, 에너지 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을 주는 선진국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상황에 따라 우선주와 채권도 투자 대상이다. 저평가 된 자산군·국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약 5%의 배당률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때 안전판을 제공한다.

상반기 기준 누적 성과를 살펴보면 1

개월 1.4%, 6개월 13.9%, 1년 8.8%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는 4.0%, 5.4%, -7.7%,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월드인덱스는 4.1%, 22.2%, 5.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펀드의 1년 변동성은 4.7%로 코스피(14.2%), MSCI 월드인덱스(12.3%) 대비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펀드의 위험조정수익률은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연기금이 선정한 대체자산 100대 운용사'인 누벤자산운용(Nuveen Asset management)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다.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의 '블랙록다이나믹하이인컴'이다. 연 초 이후 14.06% 수익을 내고 있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삼성미국코어밸런스'가 13.82% 수익을 기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은행 해외점포 수익 짹짹... 1.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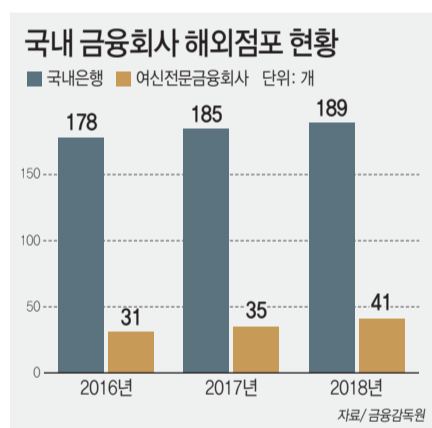
시장 내 잠재리스크 예의주시해야  
통상정책 불확실성, 위험 키울수도

시중은행 및 여신업권의 해외점포 수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내 잠재리스크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은 39개국 내 18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15개국 내 41개의 해외점포를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은행과 여전사가 각각 983백만 달러(약 1조1628억원), 105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22.2%, 10.6%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한 해외지역의 영업환경과 규제 등 잠재적인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은 현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다른 국가보다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따른 반발로 국내 기업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정책의 불확

실성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출이 감소해 국내 및 현지 금융시장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발행주식 내 외국인 보유지분 중에서도 일본 주주의 보유지분이 높은 은행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선불리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계 자금의 이탈이 있었다면 엔·원환율이 급격히 올라갔을테지만, 현재까지 그런 변동성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은행권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지점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 금융당국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관계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 한은 "美, 경기확장 국면 당분간 지속... 잠재 수준 성장세"

121개월 확장국면... 1854년 이후 가장  
미국 경제의 경기확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 중 18개월의 경기 수축기를 거친 이후 올해 7월 현재 121개월간의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의 경기 순환 판정 개시 연도인 1854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이번 경기확장 국면은 확장 국면이 장기화 지속된 이전 세 차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총생산(GDP)과 여타

경기판단 지표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고정부자의 성장기여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경기판단의 대표지표인 실질GDP 성장률(연평균)이 2% 초반 수준으로 이전 확장기의 3~4% 수준을 밑돌았다. 1983년에서 1990년까지 확장기에는 4.1%, 1992년에서 2000년까지 확장기는 3.8%, 2002년에서 2007년까지는 2.8%,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2.3%였다.

한은은 "GDP에 대한 지출 부문별 기여율을 통해 비교해보면 개인소비와 설비 및 주택 투자가 급변 경기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질

소득, 산업생산, 소비지출 등 여타 지표도 이전 경기확장 국면에 비해 완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 경제의 이 같은 경기확장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예측기관들도 향후 고용 호조,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미국 GDP성장률을 2019년 2.3%, 2020년 1.9%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5월 각각 2.8%, 2.3%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전국 휘발유 가격, 6주 연속 하락세

전국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해 1당 1491.1원을 기록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1당 1491.1원으로 전주 대비 4.6원 하락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직전인 5월 첫째주(1당 146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車 침수사고 7~8월에 집중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 분석 결과

장마 등 국지성 호우 발생 영향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자동차 침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는 6844건(연평균 1363건)이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2016년 202건 ▲2017년 1821건 ▲2018년 1333건 ▲2019년 30건 등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다. 특히 장마, 태풍 등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59.5%)이 집중됐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몇몇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일 강수량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던 2018년 8월 28일~29일에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228건(피해액 32억2000만원)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년 경기도 전체 차량침수사고(472건)의 48.3%, 피해액

의 56.2%에 달한다.

자동차 침수 피해액은 5년간 568억원으로 연평균 113억원에 달했다. 침수 차량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원)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량이 침수되면 부분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전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침수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를 승용차가 차지했다. 또 침수차 10대 중 2대가(19.2%) 외제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제차는 건담 피해액이 2068만원에 달해 국산차(540만원)의 3.8배 수준이었다.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위험차 강제 견인, 침수도로 통행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주 기자

# 하반기 5G 스마트폰 큰 장... 2200만대시장 삼성 선점

(올 전세계 5G스마트폰 판매 전망치)

삼성, 내달 美서 '갤노트10' 공개  
'갤럭시 폴드' 등 5G 라인업 확대

LG, 'V50 씽큐' 해외 순차 출시  
내년 애플 잠전시 시장 급성장



▲갤럭시S10 5G. /삼성전자



▲LG V50 씽큐. /LG전자

하반기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5G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급증해 판매량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5G 스마트폰은 220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시장으로 예측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5G 스마트폰이 500만대 이상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미국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

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에서 구매 가능한 5G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S10 5G'와 'LG V50 씽큐' 뿐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하반기에도 시장 선점을 지속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은 중국이다. 화웨이·샤오미·오포 등 중국의 주요 업체가 5G 스마트폰을 예고하고 있는 만

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에선 출시 70일 만에 100만대의 5G 스마트폰이 판매되는 등 5G 스마트폰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는 삼성과 LG를 포함해 여러 글로벌 업체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

서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한다. 같은 달 말이나 9월 초 출시가 예상된다. 출시가 미뤄진 '갤럭시 폴드'도 5G로 공개하면서 5G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하반기 5G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한 이후 주력 시장인 북미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호주 등 5G 통신환경이 구축되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 LG V50 씽큐를 순차 출시하고 있다. 5G 스마트폰에 특화된 '듀얼 스크린' 후속작도 준비 중이다.

모토로라, ZTE, 원플러스 등 글로벌 주요 업체도 하반기 5G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5G가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은 올해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애플이 퀄컴과 특허 분쟁을 벌이다가 올해 4월 화해하면서 5G 모뎀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하지만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프 필드백 연구원은 "애플의 경우 올해 5G 출시 계획이 없어, 5G 아이폰은 2020년이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애플이 올해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면, 미국 5G 시장은 현재 전망치보다 적어도 6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아이폰 5G가 나오면 5G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 강경수 애널리스트는 "5G의 경우 글로벌 표준이 있기 때문에 4G LTE보다 확장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통신사들은 모두 12개월 내에 론칭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네트워크 배치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19 캠핑&피크닉 페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캠핑&피크닉 페어 서머마켓'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캠핑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5G 단말기, 해외 진출 수월해진다...국내서 국제공인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 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기업이 단말기를 수

출하려면 이 시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테스트베드가 마련되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

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4G 인증 때보다 60% 저렴한 2억1600만 원에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TTA는 국제공인 인증 전 사전 테스트를 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해준다.

/연합뉴스

## 韓 모바일인터넷속도 세계 1위... "5G 효과"

5세대(5G) 이동통신이 국내에서 상용화된 이후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가 크게 증가하며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를 운영하는 우클라(Ookl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76.74Mbps로 조사대상 14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노르웨이(67.93Mbps)는 9개월 만에 2위로 밀려났다.

전 세계 평균치는 27.22Mbps로 집계됐다.

지난 3월 54.89Mbps로 6위에 머물렀던 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4월 들어 16% 증가한 63.81Mbps를 기록하며 3위로 뛰었고, 한 달 만에 20.2%나 더 가속하며 1위에 올랐다. 세계 14위에 머물렀던 1년 전보다는 79.7% 빨라졌다.

지난 4월 3일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우클라도 이를 5G 효과로 진단했다.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승진자 절반 이상 '여성'

초급관리자에 여성 53.6% 임명 첫 女 보험재정국장 등 핵심보직

근로복지공단(이사장삼경우)은 이달 시행한 2019년 하반기 3급(차장) 승진인사에서 승진자 84명 중 45명(53.6%)을 여성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3급 차장은 초급관리자로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하급자 사이의 가교역할 등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공단은 앞서 지난 1월 시행한 여성부장승진(53%)에 이어 이번 인사로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해 사회형평적 인사실현'이라는 국정과치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본부 핵심보직인 보험재정국장, 전략기획부장 등에 여성간부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한용수 기자 hys@

SK매직 "日 린나이 제치고 1위 고수" 업계, 반일감정 고조시기 맞춰 견제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으로 잘 알려진 린나이코리아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유탄을 맞고 있다.

100% 일본계 기업인 린나이코리아를 놓고 최근의 반일 감정을 틈타 관련 업계에서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더욱 본격화될 경우 40년 넘게 국내에서 쌓아올린 이름값에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14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인 SK매직은 최근 가스레인지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토종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 가스레인지 시장을 연 일본기업 린나이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SK매직이 이 참에 경쟁사를 완전히 제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1974년 설립한 린나이코리아는 '일본국 린나이코퍼레이션'이 97.7%, '린나이 홀딩스'가 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100% 일본 회사다.

설립 이후 린나이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가스레인지를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

## Rinnai

해왔다. 80년대 당시 린나이 가스레인지는 주부들의 '꿈의 아이템'이었을 정도로 명성을 날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스레인지 시장은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스레인지 시장을 개척했던 린나이코리아는 당시 제품 출시 후 줄곧 시장에서 1위를 달려왔다. 그러다 3~4년 전부터 SK매직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시장 1위인 SK매직의 점유율은 40%대 초반, 2위인 린나이코리아는 30%대 후반으로 근소하게 차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그룹 계열인 동양시멘트 가전사업본부에서 출발해 동양매직, 그리고 지금은 SK그룹 계열이 된 SK매직은 설립 초기 미국 매직셰프사의 가스오븐레인지 등을 들여와 국내 판매를 시작한 후 가스레인지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관련 분야에서 린나이코리아와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지금은 두 회사가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1·2위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 시장에선 대기업인 LG전자와 파세코 등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파세코는 삼성전자, 코웨이, 한샘 등에 빌트인가전기기를 납품하는 동시에 창문형 에어컨, 서큘레이터, 난로 등 생활·계절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

소기업이다.

린나이코리아는 가스레인지 외에 가정용 보일러 분야에서도 '톱 3'에 올라 있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1·2위로 시장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보일러 시장에서 3위인 린나이코리아를 넘볼 회사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3251억원의 매출과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직전년도엔 매출 3501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일본기업 린나이'를 적극 견제하고 나선 SK매직은 지난 2016년 말 매직홀딩스에서 SK네트웍스로 주인이 바뀌면서 사명도 동양매직에서 SK매직으로 변경했다. SK네트웍스가 지난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린나이코리아가 일본계 회사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국에서 45년 넘게 브랜드 명성을 쌓아올린 터여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반일 감정이 제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린나이코리아는 2017년 초 당시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론이 들끓자 이후 구글지도로 바꿔 현재는 동해로 표기해 놓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반궤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람 눈같은 카메라 필터로 스마트폰 넘어 자율차 진출

## 코스닥스타를 찾아서

4 옵트론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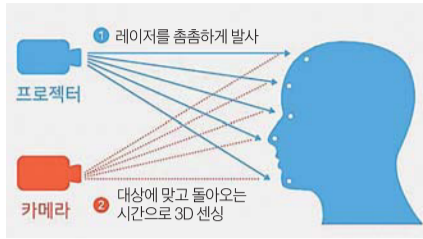
매출 83% 스마트폰 카메라 필터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 전·후면에 '밴드패스 필터' 적용 자율차 한대에 10개 카메라 필요 글로벌 특 업체들과 협력 준비중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이 사람의 뇌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카메라는 주변 환경을 단순히 기록하기 위한 '촬영'용 기기에서 이를 '인지'하기 위한 기기로 변모했다. 옵트론텍은 인지하는 카메라를 위한 3D 센싱용 밴드패스 필터분야 1위 기업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옵트론텍은 카메라 하나에 집중해 성장한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와 렌즈 분야에 특화돼 있다. 촬영에서 인지로, 카메라 역할 변화에 발맞춰 기술을 키웠다.

최근 스마트폰은 전·후면 듀얼카메

<3D 센싱(ToF\*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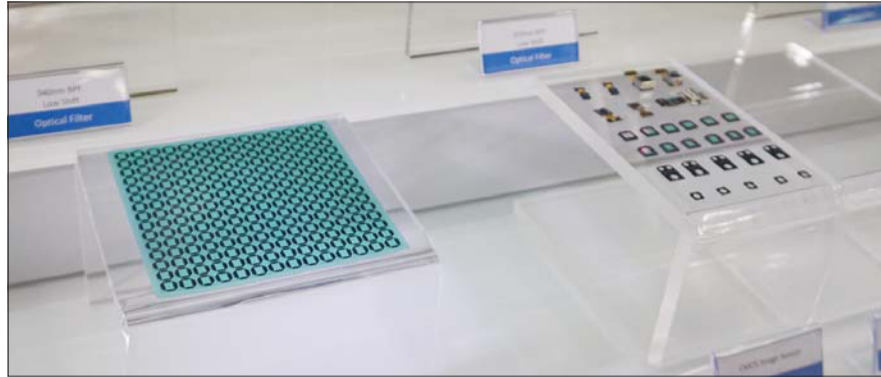


라 시대를 넘어 원근 조절, 생체인식, 보안 등을 위해 트리플, 쿼드 등 멀티카메라 시대를 맞이 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만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옵트론텍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까지 사업을 넓힐 계획으로 다음 30년을 준비한다.

###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 세계 1위

옵트론텍은 카메라 필터와 렌즈를 만드는 광학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83%가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 관련 사업에서 나온다. 필터로 빛의 파장이나 파장 범위를 걸러내 카메라가 사람의 눈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물을 촬영할 수 있다. 나머지 매출은 빛의 초점을 모아 분산시키는 렌즈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가변조리개(IRIS) 등에서 나온다.

옵트론텍은 2001년 국내 최초로 적외선(IR)은 차단하고 가시광선만 투과시키는 'IR필터'를 개발했다. 녹색화 현



옵트론텍은 필름 필터로 0.1mm까지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 두께를 얇게 만들었다. /옵트론텍

상 및 중심부 주변부 색감 차이를 해결한 '블루필터'도 개발해 2013년 세계 1위 블루필터 기업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옵트론텍은 유리 필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유리 필터는 0.2mm 이하로 두께를 줄일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 얇아지며 카메라 모듈 구조도 얇아져야 했다. 이에 옵트론텍은 2014년 세계 최초로 0.1mm 두께의 얇고 깨지지 않는 '필름필터'를 개발했다. 2016년부터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내 카메라 수가 확대되면서 옵트론텍의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옵트론텍의 양승대 이사는 "자동 점검 등으로 품질 관리를 철저해 경쟁사에 비해 불량률이 10% 낮다"고 밝혔다.

### ◆국내 유일 3D 센싱용 밴드패스 필터 생산

옵트론텍은 국내 유일의 3D 센싱용 핵심 필터인 밴드패스 필터(Band Pass Filter) 생산 기업이다. 3D 센싱은 카메라가 사물을 인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로 카메라에서 레이저를 쏘아 돌아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ToF(Time of Flight)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3D 센싱을 통해 스마트폰의 지문·홍채·안면 인식이 가능하다. 이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 모델에 옵트론텍의 밴드패스 필터가 들어가 있다. 현재 갤럭시 S10 5G 모델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한 개의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됐지만 향후 2~3개 카메라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밴드패스 필터는 일반 필터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고가 제품이며 올해 옵트론텍 실적을 견인할 제품으로 꼽힌다.

3D 센싱은 스마트폰은 물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보안카메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업계는 3D 센싱 시장이 최소 4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한다.

양승대 이사는 "밴드패스 필터 시장은 이제 개화기에 들어섰기에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D 광학 솔루션 선도기업'으로

옵트론텍은 지난 6월 28일 옵트론텍 창립 30주년에 맞춰 '3D 광학 솔루션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를 했다. 5G 시대에 맞춰 인간 중심에서 사물과 사람의 초연결 시대에 맞춰 중요한 카메라 '인지' 역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옵트론텍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인지하는 카메라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운행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드 미러, 백미러 등 자동차 전 영역에 사람의 눈과 같은 카메라가 달려야 한다. 옵트론텍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한 대에 약 10개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전체에 밴드패스 필터가 들어가야 하기에 옵트론텍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이를 준비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 청호나이스 '이과수 살균 정수기 세니타' 출시

청호나이스는 싱크대 위에 올라가는 카운터탑 냉온정수기 '청호 이과수 살균 정수기 세니타'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살균정수기 세니타'는 지난 5월 출시한 '살균 얼음정수기 세니타'에서 얼음 기능을 제외한 제품으로 정수 4.6L, 냉수 3L, 온수 0.57L의 넉넉한 용량을 갖춰 물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에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유로와 저수조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어 위생 걱정이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살균 정수기 세니타'는 정수기의 위생을 강화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는 안심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제품에 적용된 살균기능은 주1회 사



청호나이스 이과수 살균 정수기 세니타와 모델인 배우 염정아.

용빈도가 낮은 시간에 자동으로 전기분해수를 생성해 물이 흐르는 유로를 타고 흘러 저수조 내부까지 유입돼 안전하게 살균한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우수中企 해외 진출 돕는다

기술교류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하반기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여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기술교류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의 기술 진단, 기술 수요가 있는 해외 기업 발굴·매칭, 계약과 투자 지원 등 해외 기술교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는 국내 기술의 수요가 높은 신흥국인 페루 리마에

서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자체 기술력을 보유해 기술이전 가능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기업과 매칭상담, 통역, 현지차량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상담회 이후에는 시험 인증, 수출 서류 대행 등 후속지원도 실시한다.

올해는 기술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업체와 계약 협의의 진행단계부터 자문, 통·번역 등 상시 기술교류 지원을 강화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

중기벤처부·공영홈쇼핑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 발표

제품 100% 완판 안돼도 홈쇼핑-공급사, 손실 공유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처음으로 홈쇼핑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재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송 3회'도 보장한다.

중소기업 협력사와 이익공유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TV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날로 방송을 시작한 지 꼭 4년째가 됐다.

우선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모두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수수료율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정액제 수수료란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지난 10일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TV홈쇼핑을 위해 준비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정률제는 위험을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제품 공급 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판매방송 최초 3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최초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3회 방송 기회를 제공해 제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고 부담

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재고가 없는 등 공급업체가 방송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엔 제외한다.

성과공유를 위한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분기별로 취급액이 20억원을 도달하면 협력이익을 나누는 것이 골자다. 공급업체에게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주고, 판촉 프로모션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다. 또 전문가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마케팅과 디자인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V-커머스'도 적극 도입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생존을 위해선 콘텐츠와 비즈니스 등이 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홈쇼핑사들이 전부 V커머스에 빠져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듯 TV홈쇼핑도 TV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공략해 소비자들과 점점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기부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지방청별로 차별화된 수출지원사업인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규모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 해

외진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지원대상은 전기·전자 제품 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군에 속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내수기업이나 또는 전년도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서울지역 중소기업으로 창업 3년 이상, 7

년 이하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통번역,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통,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등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같다. 다만 서울특화형의 경우 해외규격인증, 해외전시회, 온라인마케팅 등 직접적인 해외 마케팅에 제격이다.

/김승호 기자

# 日 수출규제, 北 중재자 부정... 외교위기 직면한 文

외교부, 日 공관장회의 참석 불구 '국장급 협의' 진행 못하고 귀국

북 매체 “남조선 끼어들 필요 없다 실권행사 美 상대하는게 더 생산적”

문재인 정부에게 7월은 '외교악몽의 달'인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하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동상통'으로 정평이 난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미국 측과 대응을 논의했다. 김 제2차장은 13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딜레스 국제공항

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일본의 대(對)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규제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본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했으나,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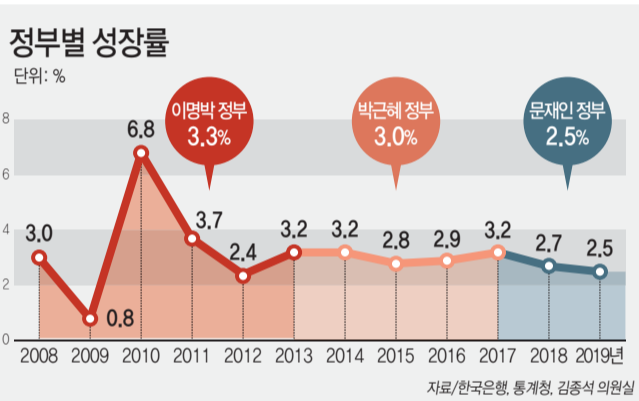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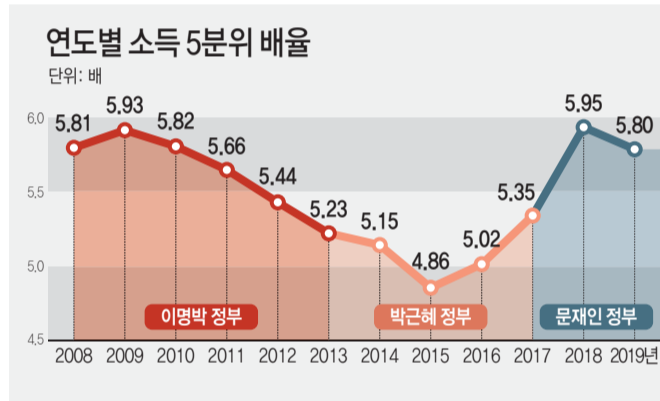
다음은 북한의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레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가 마주 앉아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단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

화와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해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처한 '대한민국 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면모를 보였던 외교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이 부정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지지를 하락은 물론, 그간 선보인 외교 행보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소주성, 단기부양책... 기업 자생력 길러야”

〈소득주도성장〉

김종석 의원 자료 토대 경제 분석

지난해 소득 5분위 '역대 최악' "현 정부, 2년간 중요소생산성 등 3개변수 하락 가속화 정책 사용"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히 "소주성은 '단기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생산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신문은 13일 김 의원이 제공한 대한민국 소득분배·성장률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회복 방안을 알아봤다.

◆"정부, 잡초 섞인 꽃밭에 비료 뿌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먼저 "경제 성장은 국내 총생산(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과 생계비 부담 해소 등 정책은 좋지만, GDP 성장을 돕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주성은 고전적인 단기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합한 한국은행·국

민계정·통계청·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또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평균 3.3%, 박근혜 정부는 3.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2.5%다.

김 의원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하면 성장률이라도 오르거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랐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GDP를 높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생계비를 보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총수요확장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인상... 빈부격차 재촉"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 ▲잠재노동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가지 변수 하락을 가속화하는 정책만 사용했다"고 짚었다.

먼저 자본축적(자본투입)이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설비투자 또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했다는 것이다.

잠재노동의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612.8억 시간에서 올해 588.1억 시간으로 24.7억 시간 줄었다. 증감률

은 -4.0%다. 지난 2년 간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가구 20%의 지난해 말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기준 14.2% 증가했지만, 하위 저소득 가구 20%는 36.8% 감소했다.

◆"정부, 과신 버리고 기업 자생 도와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인정보·인공지능(AI)·모빌리티·공유경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한다. 정부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동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민관합동 자문 조직 수준으로는 경제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4차산업혁명·규제혁신 통제 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산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인·관료로 구성된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주의 관치 계획 경제의 말로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도 반등한다는 것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해수부 '7개 테마 가족 바다여행 50' 발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어촌·어항 인근의 바다 여행 명소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7가지 테마(주제)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 50' 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국가 어항, 다기능어항 등 총 50곳의 어촌 여행지를 7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7가지 주제는 ▲축제 여행

▲바다 누비길 여행 ▲별미여행 ▲사신여행 ▲해안 드라이브 여행 ▲해양 레저여행 ▲캠핑 여행이다.

책자에는 주제별 여행지뿐만 아니라 추천 일정, 체험, 주변 관광지, 지역 별미까지 실용적인 정보와 다양한 사진 등을 담았다. 이 책자는 도서관, 관광안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포된다. /석대성 기자

## 숙박·렌터카 피해 급증... 대책마련 시급

이태규 의원 "4년만에 피해 2배 증가"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었다. 특히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정당한 환불요구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를 차지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사례 절반은 실질적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끝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는 1596건(49%)에 달한다.

렌터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석대성 기자

## 농진청, 비닐하우스 '비닐' 국산화 잔걸음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국내 시설원예(비닐하우스) 농가 상당수가 일본산 비닐(필름)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가 국산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설원예 재배 면적은 5만2418ha로, 그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5만1997ha를 차지해 사실상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연간농업용 필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국산 118t·일본산 1500t

으로 일본산이 국산을 10배 이상 압도했다. 그러나 국산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국산 2450t·일본산 2850t 등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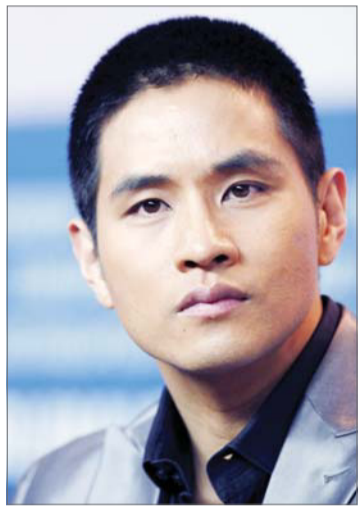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여전히 일본산 비닐이 상당수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시설농가 16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5.9%가 일본산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석대성 기자

# ‘유승준 반감’ 여전 입국금지 청원 쇄도

청와대 국민청원 16만여 명 돌파  
‘선거권 제외’ 내국인과 권리 같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여문 ‘부글’



유승준. /뉴스

대법원이 지난 11일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뒤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승준 입국금지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여문 ‘부글’

## ◆두 차례 재판과 두 차례 패소

병역 기피 논란과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유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유 씨는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 씨에 대한 비자 신청 거부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될 수 있었다”라며 “입국금지조치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승준은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 당시나 그 이후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의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다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38세)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라며 그에 대한 비자 신청 거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F-4 비자 신청으로 논란 확산

특히 유 씨가 신청한 비자가 F-4로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라는 사실에 부

정적 여론은 더 들끓고 있다. F-4 비자로는 한국 땅을 밟는 것을 넘어서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 씨 측은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F-4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장기간 머물며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취득할 수 있다.

유 씨는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내며 국내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에 앨범을 내려 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이를 철 회하면서 한차례 무산됐다. 이 곡에는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전에” 등의 후회를 담은 가사도 담겨 있다.

한편, 일각에서 17년의 세월이 흐른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여론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의 판단은 그를 2002년으로 되돌렸지만, 유 씨 스스로가 불러들인 국민적 불신은 과연 200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천재소년’은 왜 8년 지나도 박사 못 땀나

송유근, 제적 처분 소송서 패소  
法 “논문표절 논란에 책임 있어”  
UST “논문, 졸업 요건 못 갖춰”



송유근. /연합뉴스

“1997년생, 6세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 지능지수(IQ)는 187.” “8살이던 2005년에 최연소로 인하대학교에 입학.” ‘천재소년’ 송유근씨에 대한 얘기다. 하지만 그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학교측은 송씨를 제적 처분했다. 그는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송유근은 지난 2009년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송 씨가 영국의 한 저널에 발표했던 블랙홀 관련 논문이 2015년에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송 씨의 논문은 이듬해 11월에 공식 철회됐다. 또 송 씨는 같은 해 설상가상으로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까지 겪었다.

결국 송 씨는 2009년 입학했던 UST로부터 지난해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

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이로써 송 씨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군 복무를 마친 후 다시 다른 대학 학위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

이에 송 씨 측은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송 씨는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논문 표절 논란은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 씨는 UST를 졸업이 아닌 ‘수료’로 마쳤다. 이

에 송 씨 부친은 “아들이 2015년 논문 표절 논란 이후 지도교수도 없이 블랙홀 연구를 지속해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는데도 불합격 처리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UST 측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한 편 게재가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은 맞지만 졸업을 위한 학위논문은 이와는 별개”라며 “송 씨의 논문이 졸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의 제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 역시 큰 충격에 빠졌던 바 있다. 송 씨는 어린 나이지만 누구보다 빼어났고, 소신도 있었기 때문이다. 송 씨는 한 방송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있어서 초중고 12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 길지 않은 인간의 생애에서 조금 더 빨리 제가 원하는 공부와 연구를 하기 위해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한 바 있다. 송 씨는 “실제로 어디에서든 다져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대학에서도 형 누나들과 잘 놀았다. 어디에서도 나이 차이가 나든 간에 잘 어울리고 문제없이 지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현경 기자



‘대한 독립만세! 100년 전 그날로...’

재외동포 및 국내 대학생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형 태극기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사업비 1.7조 조기집행

서울시교육청은 경기회복세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비 1조7498억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2조 5775억원)의 68.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별로는 공·사립 학교운영비 6555억원,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4944억원, 맞춤형복지비 616억원이 집행됐

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집행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점검단을 구성, 매월 주간간부회의 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관리해 왔다.

또 학교현장의 실행행렬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비, 각종 목적사업비 등 학교회계전출금을 조기 교부해 상반기

집행을 적극 독려했고, 이월사업비 적기집행,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선금·기성금 지급 활성화 등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집행 목표액 초과 달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자 노력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밀레니얼 세대 72% “집에서 즐긴다”

“제일 편하고 지출 줄일 수 있어 선호”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은 스스로 ‘휴루텐스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루텐스족이란 ‘홈(Home)’과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Ludens)’를 합친 말로 자신의 주거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14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30대 밀레니얼 세대 38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2.3%는 스스로를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휴루텐스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성별로 여성(76.5%)이 남성(61.4%)보다 15.1%포인트 높았다.

이들이 휴루텐스족이 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집이 제일 편하기 때문’(79.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출을 줄이고 싶기 때문’(38.1%),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이기 때문’(20.1%), ‘집에서는 내 취향을 오롯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오히려 집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각 13.1%) 등의 순이었다.

스스로를 휴루텐스족이라고 밝힌 이들이 평소 집에서 즐기는 활동(복수 응답)으로는 ‘대형TV나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홈영화를 즐긴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이나 가정 간편식 등을 이용해 유명 식당 음식 즐기기’(43.2%)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 연임 성공

“직업교육 에이스대 만들 것”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박 총장은 삼육보건대를 ‘직업교육의 에이스(ACE)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황춘광)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박두한 총장의 재선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2015년 부임 이후 4년 동안 ‘진심으로 교육하여 진심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진심대학’을 표방하며 삼육보건대 발전을 견인해 왔다.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박 총장은 두 번째 임기 출범을 앞두고 “2015년 부임 당시 비상(非常)의 시기에 대학을 책임지게 되어 비상(飛上)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며 “융·복합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수요에 탄력적인 직업교육 혁신을 이뤄 우리나라 최고의 ACE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 동국대 영상대학원 후기 신·편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19학년도 후기 특별전형(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동국대 영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2019학년도 2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석사과정만 모집한다.

모집학과 및 전공은 문화콘텐츠학과(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 멀티미디어학과(콘텐츠공학, 콘텐츠디자인, 융합콘텐츠제작) 등이다. /한용수 기자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한라·아세아시멘트,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봉사 참여**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임직원들이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현장 봉사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는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한국해비타트 천안현장에서 진행했다. /한라시멘트



**제품안전학회, 제품안전경영대상 시상식**  
한국제품안전학회가 제품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열고, 다성테크 등 5개 기업에 대상을 수여했다. 제품안전학회는 지난 12일 오후 1시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법학관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후원으로 '제품안전혁신과 사회적가치 창출' 주제로 2019 한국제품안전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제품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제품안전학회 노경호 회장과 문형남 부회장(오른쪽 여섯번째, 다섯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품안전학회



**소상공인연합, 2018 미스코리아 7명에 'K.tag 특별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지난해 미스코리아 7인에게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K.tag 특별상'은 작년부터 K.tag 홍보대사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2018 미스코리아 7명에게 주어졌다. 최승재 회장(오른쪽)이 2018년 미스코리아 진 김수민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에이스침대, 모델 박보검 팬 사인회 열어**  
에이스침대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에이스침대 매장에서 브랜드 모델 박보검과 함께하는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박보검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에이스침대



**삼육대, 대한건기연맹과 10월 건강 걷기대회 공동 개최**  
삼육대와 대한건기연맹은 지난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3650 건강 걷기대회' (가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10월 13일 삼육대 캠퍼스와 주변 노원구,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서 건강 걷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삼육대 오덕신 부총장(왼쪽)과 대한건기연맹 이강욱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 기꺼이 포기할 것들



홍경안  
의  
시시일각

미술현장을 외면했다며 2013년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몰려가 시위까지 벌였던 이들은 오늘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미술현장을 대변하는 게 서울대 출신 작가들로 채워진 전시에 항의하는 일보다 가벼운 것일까.

대작 논란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한 조영남 사건에는 성명서 발표와 고소까지 진행했던 미술단체들은 정작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견작가들의 현실에 대해선 말이 없다. 누군가의 작업실엔 팔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고, 누군가의 작업실엔 딱딱한 삶을 사느라 그림 시간이 없어 그림이 없는 양극화현상을 우려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작가들이 유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바리다매로 작품을 팔게 하는 기이한 양태를 조장해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정책을 수년째 접하면서 한국 미술계 식자라는 자들은 별 다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이 깔아 놓은 무대에 올라 원고료 몇 푼에 이름을 빌려주고 무색무취한 글을 통해 적당히

동조한다.

하긴, 문제가 있어도 유구무언하거나, 유사한 사안이라도 그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 미술계 인사들의 모습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일례로 '내 사람 심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독선에 대항한 사례로 남은 2013년 '부산비엔날레' 파행 사태 당시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한 소장파 기획자 및 평론가들은 민주적 절차의 옹립과 원칙 추구를 외치며 감독 선임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 양태에 보이콧(Boycott)까지 불사했다.

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한국큐레이터협회장이었던 그는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사태"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약 6년의 시간이 흘러 그 또한 불합리한 문화행정과 '코드 인사' 의혹의 주인공이 되었고,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일부 작가들을 제외하곤 누구도, 어떤 단체도 반발하지 않았다. 2013년 당시 윤 관장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을 외치던 이들조차 침묵의 터널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자신과 관계된 문제라면 기꺼이 누군가에게 맞서지만 누군가를 위해 맞서는 모습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미술계이다. 보신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몸에 밴 무능과 권태로운 욕망 외엔 물려줄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이들이 소위 동시대 한국 미술계를 이끈다는 사람들이다.

매번 이런 글을 써봐야 달라질 것 하나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보면 문득 문득 되묻게 된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집요하며, 시니컬한 이미지로 기억될 것을 모르진 않음에도 그 욕망의 분동에 비례해 책임감과 책무 또한 준수해 왔는지 궁금해진다.

예술가들이 버틸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자생력 확보에 힘을 보탬 책임, 사회 속 예술의 위치를 견고히 다져야 할 책무, 흔들림 없는 신념과 소신으로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며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비전에 공들일 책임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읽히진 않는다. 그들의 궤적과 모든 태도의 중심에는 이해관계와 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사적 혹은 공적 욕망이 들어 있었고, 그토록 되뇌던 정의의 의미를 포함한 부당함에 대한 분노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혜택 앞에선 무용지물인 것이었다.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것들이었다. /미술평론가

# 프랜차이즈協, 국내기업 印尼 진출 돕는다

## 인니프랜차이즈協과 업무협약 양국 법규·정보 교류 등 협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AF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FI는 약 80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협회와 함께 WFC(세계프랜차이즈협회) 및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메인스테이지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 이사(社) 에스엘에프앤비이종근 부사장이 협회를 대표하여 참석,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아남 수칸다르 인도네시아프랜차이즈협회장(왼쪽)과 이종근 에스엘에프앤비 부사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사)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아남 수칸다르 인도네시아협회장과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회는 향후 인도네시아협회와 ▲양

국가행사 관련 법규 및 정책 정보 교류 ▲양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교류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도모 ▲박람회, 바이어 매칭, 창업설명회 등 양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구만 약 2억6000명에 절반이 30대 미만인 인도네시아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확대 기조 속에 외국계 성장률(14%)이 전체 평균(8%)을 웃도는 등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교촌치킨, 피자마루, 푸레쥬르, 신마포갈매기 등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진출, 약 22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회장 한국외대 발전기금 1억 기탁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은 지난 10일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과 스마트도서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65학번인 강 회장은 제26대, 27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기부로 강 회장의 총 기부액이 2억 원을 넘었다.

/한홍수 기자 hys@

## 인사

◆**통일부** ◇ 과장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백상열

## 부음

▲ 김준호(서울대 식물생태학 명예교수·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씨 별세, 박시현씨 남편상, 김정원·김광원(수원과학대 자동차학과 초빙교수)·김주원(비엠에스 부사장)씨 부친상, 장윤화(예비역 공군 소장)·김근배(송실대 경영학과 교수)·이호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이정은씨 시부상 = 14일 오전 9시17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2-3410-6917. ▲ 조양진(동아투위 총무)씨 별세, 고진하씨 남편상, 조선영·조소연씨 부친상 = 14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3층 2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02-3430-0226. ▲ 이재천씨 별세, 이성구(사업)·이용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씨 부친상, 배상하(CBS 마케팅지원)씨 장인상 = 14일 오전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16일 오전 부산추모공원, 010-2548-4771. ▲ 윤준광(제주도의회 의원)씨 별세 = 13일 오후 6시 57분, 제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 17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앞마당, 장지 서귀포 추모공원.



# “폭염에는 물캉스!” 쇼핑몰, 이색 체험으로 집객 효과

**IFC몰** 17일까지 빅박스 미니카 축제  
**롯데몰** 물놀이장·시즌 축제 개최  
**스타필드하남** ‘신비아파트’ 이벤트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유통가에서는 여름시즌 특수를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휴가를 즐기기 위해 야외로 놀러가지 않고, 쇼핑몰로 향하는 ‘물캉스족’이 늘면서 복합쇼핑몰들은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폭염이나 장마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캉스(물+바캉스)를 즐기려는 고객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키덜트족 위한 미니카 축제

복합쇼핑문화 랜드마크 IFC몰은 오는 17일까지 물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빅박스 미니카 축제’를 개최한다.

빅박스 미니카 축제는 팝업스토어 내 미니카 전시와 미니카 제품 조립 체험, 미니 트랙 위의 액션 레이싱까지 키덜트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빅박스 미니카 축제.

/IFC몰

체험형 콘텐츠다.

이 기간 동안 L3층 사우스아트리움에서는 미니카 기본킷, 베이직튠업셋, 배터리 등을 전시·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며, 이곳에서 구입한 제품을 조립한 후 트랙 체험과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 ◆롯데몰 은평점, 어린이들 공략!

롯데몰 은평점은 3, 4층에 위치한 어

린이 테마파크 ‘언더씨킹덤’에서 8월 31일까지 여름 시즌 축제 ‘언더씨 매직 스토리’를 개최한다. 풍선을 활용한 마술 공연 ‘언더씨킹덤 벌룬쇼’와 삼바 공연 ‘매지컬 파라다이스’는 관람객도 참여가 가능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끈다. 체험형 놀이시설로 알스튜디오, 산호빌리지, 키즈토리아에서는 간단한 도구 마술을 체험한 뒤 미션 완료 도장을 받



신비아파트×스타필드하남.

/CJ ENM

◆스타필드 하남, ‘신비아파트가 떴다!’ 스타필드 하남점은 이달 25일까지 CJ ENM과 함께 투니버스 캐릭터 ‘신비아파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며, ‘신비아파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존과 뮤지컬 공연 등을 함께 선보인다. 주말은 물론, 주중 상시 운영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스타필드 하남을 찾는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중 주말 동안에는 증강 현실(AR) 게임인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체험존도 열린다. 개인 스마트폰 또는 체험용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LED와 연결해 실감 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풍성한 경품 및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며 특히 스타필드 하남에서만 잡을 수 있는 귀신을 제공해 게임 유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갤러리아명품관, ‘컬러 스톤 다이아몬드’ 전시

갤러리아명품관이 오는 31일까지 영

국 하이엔드 주얼리 전문 브랜드 그라프의 ‘컬러 스톤 컬렉션’ 전시를 진행,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총 판매 규모 약 120억원의 최고급 보석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14일 전했다.

/갤러리아

## 롯데백 “명품 최대 90% 파격 세일”

내일부터 ‘해외명품대전’ 진행

100여개 브랜드 참여… 역시즌 상품도

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부터 해외명품대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결산 명품 행사를 통해 총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30%~9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의류, 가방, 구두 등 봄, 여름 상품의 할인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패딩, 모피 등 역시즌 상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롯데백화점 해외명품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4% 신장하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가방, 지갑, 구두 등 잡화는 물론 해외명품의류까지도 전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신장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명품 성장세에 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결산 해외명품대전에서 해외명품 의류 물량을 대거 확보하고 전년가지 2~3개점포에서만 진행했던 점포를 5개점으로 확대했다.

이번 해외명품대전에서는 ‘마이클코어스’, ‘발리’, ‘에트로’ 등의 명품 잡화 브랜드와 ‘겐조’, ‘센존’, ‘에스카다’, ‘소니아리키엘’, ‘막스마라’ 등의 명품



고객이 명품 패딩 제품을 시작해보는 모습.

/롯데쇼핑

의류 브랜드 상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명품 모피 브랜드인 ‘사바티에’, 명품 패딩 브랜드인 ‘파라점퍼스’, ‘노비스’의 역시즌 상품도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행사기간 중 롯데카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에 따라 5%에 해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며, 50만원 구매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본점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본점은 16~21일, 잠실

점은 16~21일 1차 행사를 진행하고 8월 14~18일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본점은 8월 1~8일, 대구점 8월 15~19일, 인천테리널점은 8월 22~25일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최용현 해외명품팀장은 “해외명품 매출은 전년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외명품 행사로 고객들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명품을 쇼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현대H몰,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관 오픈

온라인편집숍 ‘서울패션산업관’ 오픈

현대홈쇼핑이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유통 판로 지원에 앞장선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현대H몰은 15일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협업해 온라인 편집숍인 ‘서울패션산업관’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현대H몰은 ‘서울패션산업관’에 총 12개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자체 품평회를 통해 상품 경쟁력이 높은 브랜드들을 선정했다.

회사는 지난 2017년 서울 주얼리산업 공동브랜드인 ‘스페이스42’를 온라인에 단독으로 선보인 것이 계기가 돼, 이



번에도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H몰은 의류(그리다제이·주빈·스프링봄·구공페스트), 잡화(아르75007·퀴스케·다엘·양말장인), 주얼리(예노주얼리), 라이프스타일(엘비스독·푼푼·윈월드프로덕션) 등 12개 브랜드 총 200여개 아이템을 단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H몰은 오는 21일까지 ‘서울패션산업관’ 오픈을 맞아 입점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 및 일차별 5~8%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GS25, 외화결제 전국 확대… 달러·위안·유로 등 편의점서 사용

서비스상품 제외 모든 제품 구매가능

편의점 GS25는 달러·위안·유로·엔 등 네 가지 종류의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전국 점포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GS25는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이나 해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과 이태원, 제주도 등에서 외화결제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의 국내 사용처를 찾는 내국인이 많아져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앞으로 GS25에서는 택배와 같은 서비스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외화로 구매할 수 있으며 거스름돈은 원화로

받게 된다. 매일 신한은행으로부터 환율 정보를 받아 환율을 적용한다.

위조지폐 사고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영주와 근무자를 위해 결제 시 내 종류의 화폐 이미지가 계산기 화면에 뜨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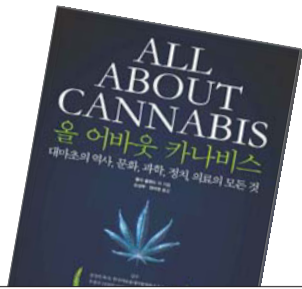
/김민서 기자 min0812@

새로 나온 책

## 대마의 역사부터 의료까지 그 모든 것

‘올 어바웃 카나비스’는 대마의 역사부터 정치적 논쟁, 다양한 약리 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대마 약효가 인류의 문화, 예술에 미친 영향도 다룬다. 뉴욕대 정신과 교수인 저자 줄리 홀랜드는 대마가 여러 증상에 의약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친다. 기독교인의 어원이 되는 ‘기름부은 이(그리스도인)’의 ‘기름’이 바로 대마 씨 기름이라는 사실을 어원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눈에 띈다. 대마 약효의 ‘탈습 관화’ 현상이 인류의 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을 살펴봤다. 뿐만 아니라 대마 불법화의 근저에 깔린 자본의 정치적 논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이 책에는 대마초의 중독성은 어느 정도인가? 대마초가 온전에 끼치는 영향 등 흥미로운 대목도 들어있다.

저자는 대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는 염증과 종양의 성장을 감소시키며, 운전자의 운동신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42년 미국 의회법회는 대마를 미국 약전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많은 증상에 대마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올 어바웃 카나비스

줄리 홀랜드 외 지음/조성무·권아영 옮김/세상의아침

치료제였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AMA는 패했으며 대마는 금지됐다. 그 후 70년 동안 대마 약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인 이해는 퇴보했다. 오늘날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과 카나비노이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마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마초는 불법 약물이다. 그러나 대마가 왜 불법 약물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다. 이 책을 통해 대마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마 불법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720쪽. 3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심슨 가족이 사는 법

윌리엄 어윈, 마크 T. 코너드, 이인 J. 스코블 공편/유나영 옮김/글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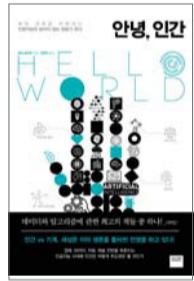


“시도란 실패로 가는 첫걸음”,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파업 안 해. 매일 제때 출근해서 엉터리로 대중 일하지” 등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하는 주옥같은 명대사를 남긴 이가 있다. 바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호머 심슨’이다. 책은 대중문화의 메인스트림이 묘사하는 현대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적 안목을 제시한다.

492쪽. 2만2000원.

안녕, 인간

하나 프라이 지음/김정아 옮김/와이즈베리



사람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글의 눈에 빠져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착각하지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통제에 의해 ‘지배’받는다. 런던대학교에서 ‘도시 수학’을 가르치는 저자는 인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객관화하고 자동화하려는 욕망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문제를 얻게 됐다고 지적한다. ‘공짜 옵션’에 장님이 된 사람들에게 무료 알고리즘에 의문을 품으라고 경고한다. 352쪽. 1만6800원.

## ‘4차산업혁명실천연합’ 민간단체 출범

4차산업혁명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 규모 민간 단체가 출범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써 4차산업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3년 설립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산업 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한 사단법인이 최근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이 사단법인은 그동안 KT 등의 후원을 받아 수년간 사물인터넷(IoT) 교육 등을 무료로 해왔으며, ‘5G를 조기에 상용화하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5G 조기 상용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ICT와 4차산업혁명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법인은 이번에 명칭을 바꿔 재출범하면서 “4차산업혁명에 관한 이론, 정책의 연구 교육 및 신직업 창출, 취업 등을 통한 산업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했다. 사단법인은 총회를 통해 문상주 이사장과 문형남 회장을 공동대표로 선



4차산업혁명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 규모 민간 단체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이 최근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문상주·문형남(앞줄 오른쪽 세번째, 네번째) 공동대표와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하였으며, 초대 공동대표인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4차산업혁명실천연합은 첫 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8일 수료식을 하는 1기 과정은, 수강생이 몰리며 접수 3일 만에 마감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2기 과정이 개설된다. 2기 과정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90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채식주의자 위한 도심 속 자연

### 내게 맞는 호텔 찾기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비건족을 위한 ‘비욘드 버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선보이는 ‘비욘드 버거’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비건 패티와 비건 체다 치즈, 비건 마요네즈 및 다양한 채소를 사용해 육류 재료 없이도 풍부한 버거의 맛을 제공한다.

비욘드 버거는 미국 비건 푸드의 대표 브랜드 ‘비욘드 미트’의 ‘비욘드 패티’를 사용한다.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된 재료만을 사용해 소고기 패티의 맛을 제대로 구현해냈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그랩앤고’ 메뉴는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긴 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이 다이어트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 및 비건버거 등의 저칼로리 음식을 제공하며, 그밖에도 핫도그, 버거 등의 핫푸드 및 컵타미수와 컵빙수를 포함한 디지털 메뉴 또한 제공한다.

호텔의 풀사이드 바비큐 스테이션에서 판매하는 그랩앤고 메뉴는 오는 9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총주방장 마틴 사토우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비욘드 버거를 선보임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얏트 식음 사업의 철학을 실천한다. 또한, 비욘드 버거를 통해 호텔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도심 속 자연 캠핑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방학 기간을 맞아 호캉스를 즐기기에 호텔에 방문하는 가족 고객을 위해 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랜드 캠핑 서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그랜드 캠핑 서머 패키지는 그랜드 객실 1박 및 어린이용 쉼 쿠션, 페이스 마스크팩 및 타투 스티커를 포함한 환경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랜드 캠핑 1시간 이용 혜택을 포함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그랜드 캠핑은 어린이 고객이 오감을 통해 자연을 경험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 그랜드 캠핑 서머 패키지(위), 망고 코코넛 빙수. ▼ 비건 버거. /그랜드 하얏트 서울



육류 재료 없는 비건 위한 ‘비욘드 버거’ 방학 맞아 가족 위한 ‘캠핑 서머 패키지’ 빙수·아이스크림·아이스티 등도 준비

살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야외 체험 공간이다. 100평 넓이의 호텔 야외 부지에 자리한 그랜드 캠핑은 샌드 플레이 존, 클라이밍 존, 스윙 존, 액티비티 존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 기간 동안 액티비티 존에서 자이언트 다트, 버블 아트, 어린이 스텝 등의 30분 체험 활동이 매일 최대 4회 진행돼, 어린이들은 놀이 시설을 즐기는 중간에도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랜드 캠핑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고객은 운영 시간 중 1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그랜드 캠핑을 기획한 김영옥 팀장은 “서울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름 특별한 추억을 찾아 호텔을 방문한 어린이가 고무패널, 철, 플라스틱과 모래로 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진짜 흙과 나무, 꽃이 있는 숲속에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자연을 오감을 통해 경험하고 친구를 만들고 여러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추억 할만한 좋은 기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 ◆버거·캠핑 그리고 디저트

채식주의자를 위한 버거, 자연주의적 캠핑 패키지와 더불어 준비된 디지털 메뉴는 싱싱한 재료로 계절감을 물씬 살렸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30도를 넘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시원한 빙수를 찾는 고객들을 위하여 망고 코코넛 빙수와 녹차 빙수를 새롭게 출시했다. 새로운 2가지 빙수 메뉴는 호텔의 라운지 카페 ‘갤러리’와 올데이 카페 & 뷔페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맛볼 수 있다.

또한, 호텔 내 베이커리숍 ‘텔리’에서는 바닐라 및 초콜릿 휴메이드 아이스크림 위에 제철 과일 콤포트, 망고 콤포트, 단팥, 쿠키, 브라우니, 마시멜로, 흑당 시럽 등을 포함한 13개의 다양한 토핑을 원하는대로 올려 먹을 수 있는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이 준비됐다.

호텔의 테라스 레스토랑에서는 뜨거운 날씨에 몸을 시원하게 식혀줄 여름 음료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페퍼민트, 시트러스, 모로칸 등의 청량감을 주는 아이스티를 선보인다. 한국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영골차, 오미자차, 유자차, 석류차, 인삼차, 생강차, 대추차, 쌍화차 등을 아이스티로 맛볼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 /그랜드 하얏트 서울

청년의 꿈이 스타트업과 만날 때...

# 신한금융, 채용박람회 인재 채용의 場으로

스타트업 기업과 인재 매칭 지원 90여명, 스타트업 실제 채용 고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신한타워에서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발표한 신한퓨처스랩 육성 스케일업(Scale-Up) 전략의 일환으로 신한퓨처스랩의 스타트업 기업과 우수 인재의 매칭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준비됐다.

취업박람회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신한퓨처스랩 출신 스타트업 37개사가 참가했다. 개발·기획·경영지원·디자인·마케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 면접이 이뤄졌다.

이틀간 진행된 박람회에는 1000여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취업과 이직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박람회는 '면접·상담 존(Zone)'과 '강연·토론 존'의 두 구역으로 나눠 행사가 진행됐다. '면접/상담 존'은 기업과 구직자간 사전 매칭 시스템을 적용해 우수 스타트업과 우수인재의 1대 1 현장면접을 진행해 인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연·토론 존'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참여 스타트업의 홍보 세션 등 다양한 취업정보 콘텐츠를 제공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왼쪽)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신한타워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 현장을 방문해 스타트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인 와디즈 신혜성 대표와 어니스트펀드의 서상훈 대표가 각각 '스타트업과 창업가 정신',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Story)'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 시간도 참가자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채용을 희망하는 37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기업소개와 희망 인재상, 기업 복지 등의 기업 정보와 함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선배직원들의 실제 취업 및 이직 성공담 공유 등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신한퓨처스랩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직자들의 예상보다 높은 관심에 많이 놀라했다"며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채용을 고려중인 우수한 인재가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채용박람회 첫 날인 12일에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뿐 아니라 구직자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많은 구직자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꿈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신한퓨처스랩 동문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성기업 역차별 시대



기지수첩

배한님 <산업부>

제참가율을 59%에서 OECD 평균 수준인 6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여성 경제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운숙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회의 때마다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위 향상, 정책 지원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여성 장관인 박영선 장관께서는 그 부분을 다 받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남성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0일 '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147만 여성 경제인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에서 여성 기업을 위해 남성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논담'삼아 나온 것이다. 정말 여성 기업인의 지위가 남성 기업인을 역차별할만큼 올라선 것일까?

이날 행사를 시작하며 정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 경제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OECD 국가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경

제인들은 이제 OECD '평균'까지 가보자 말한다. 여성 장관이 취임해서야 대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여성 기업인의 목소리를 3개월 반만 더 여쭙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여성경제인의 날 축하영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말했다. "여전히 많은 불편과 차별이 여성 경제인을 짓누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 경제인을 짓누르는 돌이 아주 조금 덜리기 시작했다. 그 시작을 '역차별'이라 말할 수 있을까.

/ericabae1683@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7월 15일 (음 6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낯은 의미 없는 날. 48년생 자식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좋은 결과. 60년생 위기를 겪으면 내 편이 누군지 안다. 72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해서 가라. 84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
- 말** 4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54년생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 양보. 66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78년생 흥망은 저절로 맑아지니 조금해하지 마라. 90년생 부모님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
- 양** 37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49년생 어느 길로 가든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 61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73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조심. 85년생 남에게 미루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
- 소** 43년생 뜻밖에도 집은 내 이름으로. 55년생 아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 주의. 67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전이 필요. 79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9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 호랑이** 38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다. 50년생 어항 속 물고기가 신세처럼 답답하고 지루하다. 6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74년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하루. 86년생 조만간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을 오후.
- 원숭이** 44년생 인생은 세움지마니 좋은 일도 올 것이다. 56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68년생 물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80년생 반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92년생 내가 놓은 뒷에 내가 걸린다.
- 토끼** 39년생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5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63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75년생 유혹이 있으니 충심을 잘 잡자. 87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 편 보기 좋은 날.
- 닭** 45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성사. 57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고 행동도 조심. 69년생 놓친 고기를 아끼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1년생 머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93년생 으쓱할 일이 생긴다.
- 개** 40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52년생 내용만큼 포장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64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76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88년생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 돼지** 46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이 떠난다. 58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따져라. 70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순조롭다. 82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94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라.
- 뱀** 41년생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수확. 53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65년생 기회는 멀게 오니 스스로 노력. 7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겸손하도록. 89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은 버려라.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6		
7	3			5	2
	4			3	
	1	7	6	9	4
8					2
4		6	3	2	9
	8				3
9		5	2		4

					8
	8			1	4
4		1			3
	2	6	9	4	
		3	8		2
				6	2
5		8			7
6		4	5		9
7					

스도쿠 정답					
9	8	2	1	5	6
2	6	1	8	3	4
5	3	4	9	6	7
1	7	6	3	2	8
3	5	8	7	4	9
8	4	9	6	1	2
6	2	7	5	8	3
7	9	3	4	8	5



## 김상희의四季 회자정리

석가모니부처님은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고(苦)라고 보았다.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고를 잉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더해 팔고(八苦) 또한 얘기한다. 생로병사의 네 가지 괴로움에 더해 원증회고 구득부고 애별이고 그리고 오음성고가 있다. 인간사의 근원적인 고통은 결국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대별된다. 존재로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몸의 속명이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듯 조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인연들과는 헤어지기 싫어도 이별해야 하는 감정은 모두 정신적인 괴로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젊었을 적에 본 영화 중 '연인'이라는 영화가 기억난다. 그 저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이야기라기 보다는 뭔가 감각적 관계에 탐닉했던 성숙한 소녀와 부자 남자의 그저 그런 애정행각인 듯도 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에 남은 것은 굳이 사랑의 감정기기를 부정하고 싶었으나 떠나는 메콩 강의 배 위에서 돌아서서는 가슴을 내리치며 속울음을 참아내야 하는 애별이고였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사 원증회고요 애별이고인 것이다. 가요 중에 바다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간다는 절절한 가사처럼 산 자끼리의 이별에도 강과 바다가 한 몫을 하듯 산자와 망자의 이별 이승과 저승과의 경계에도 항상 강이 있음을 안다. 그리스 로마신화에서는 '스티克斯'라는 강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고 인도의 전통에는 갠지스강에 유골을 뿌려 제 세상으로 가는 길목의 역할을 하게 한다. 불가에서는 사바세계에서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고 간다는 배를 일러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 한다. 회자정리라 할지라도 반야용선을 탈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없는 축복이자 복덕이니 마음을 닦아볼만 하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2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45호

문제 제공 = **보스**

# 광저우 독립운동가 양성 주역 좌우대립 희생양, 불우한 말년

## ⑩ 임시의정원 의장 김봉준은 누구...

대한민국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이다. 하지만 33회 의회는 1941년 10월 15일에 열렸다. 당시 임시의정원의 정기의회가 매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시작하자 의원 일부가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대상은 임시의정원 의장 김봉준(작은 사진)이었다. 의회는 탄핵안을 당일 처리해 의장을 탄핵 시켰다.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후 의장도 탄핵한 사건이었다.

의회는 당시 ▲외국 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 결정을 선포해 극히 불안정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한 점 ▲의원의 선거절차·전례를 무시한 비법적 선거를 했었다는 점 ▲정부 재정고갈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해 사용했다는 점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학계는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 동의 없이 좌익진영 인사를 임시의정원에 참여시키려 한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

메트로신문은 14일 김 전 의장의 생애와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3·1운동 참여 후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  
광저우 광동지부 대표로서 한인학생 지원·한국독립당 기반 확대 앞장  
1939년 임시의정원 의장 맡아... 위헌 등으로 대통령 이어 의장 탄핵  
학계선 "좌익진영 인사 포섭 일환" 평가... 6·25전쟁 중 남북후 단명

### ◆김구·이동녕·안창호와 함께 한 한국독립당 활동

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한시준 교수에 따르면 김봉준(1888.08.22~1950.09.28) 전 의장은 평안남도 용강군 오산면 출신으로 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수리관계 사업을 하며 1911년 승동교회에서 목사 한석진 등과 승동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에는 중국 상해로 망명한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군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참사와 교통부 참사 등을 거쳤다. 이후 국무원 비서장으로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을 측근에서 보좌하기도 했다.

김봉준은 도산 안창호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1921년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간부로도 활동했으며 1923년부터는 임시의정원과 관계를 맺었다. 이후 11회 의회에서 평안도 의원으로 선출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김봉준은 1930년 1월 25일 이동녕·안창호·김구 등 요인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후 기반 확대 임무를 맡았다. 당 구성은 임시정부 요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임시정부 기초 세력이자 여당이였다.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확장을 위해 광동성 광저우에 당 광동지부를 설립했다. 지부 대표는 김봉준이 맡았다.

### ◆유학 주선과 소신 유지... 한국독립당 기반 확대하다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대표를 맡은 김봉준의 주요 활동은 한인학생의 유학 주선과 당 기반 확대였다. 중국 인사의 협조·지원을 받아 한인청년 학비·기숙사비를 면제하는 한편, 중산대학과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학계는 김봉준의 적극 활동으로 광저우가 독립운동가 양성 중심지가 됐고, 임시정부·한국독립당의 세력 기반이 됐다

고 평가한다.

광동지부 역할은 더욱 커졌다.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계기로 한국독립당이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전 의장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탕을 지켰다. 이후 국무위원으로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송병조·차리석이 김구와 손잡고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독립당 세력을 규합해 한국국민당을 결성한다. 당시 광동지부는 한국국민당의 주요 기반이 됐고, 김봉준을 비롯해 김구·송병조·차리석·이동녕·조완구·엄항섭 등은 한국국민당 이사에 선임돼,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한다.

### ◆위헌 행위 vs 좌익 포섭... 대통령에 이은 의장 탄핵

1939년 11월 5일 김봉준은 임시의정원 의장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1941년 10월 15일 제 33회 의회에서 엄항섭·박찬익·차리석·민병길·양우조·이상만 등 6명의 의원은 의장 김봉준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의장 김봉준 탄핵안'을 긴급

제의한다. 외국인 신문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쥐 행정기관의 외교권과 선전행동을 침해했다는 것과 불법 선거와 선거운동으로 행정기관의 선거행정과 선거법례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재정고갈로 의회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사용해 행정기관의 재정행정을 파괴했다는 게 탄핵안 제출 사유였다.

다만 학계의 평가는 다르다. 당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일당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1941년 5월 좌익진영 민족혁명당 측이 임시정부 참여 의사를 알렸고, 김봉준은 김원봉·손두환 등을 만나 좌익 인사를 의원으로 선거하고자 했다. 각 당파를 통일해 임시정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발목을 잡았다.

탄핵안을 받은 의회는 탄핵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차리석·김학규·조완구 3명이 심사위원에 선출됐다. 이들은 탄핵안 심사 후 '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다'며 '의장직을 면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표결에 부친 심사보고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가결로 통과한다. 김봉준은 의장 선출 2년 만에 탄핵 당했고, 의회는 곧바로 의장 선거를 실시해 송병조를 의장으로 추대한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변한다. 1942년 10월 좌익진영에서도 의원이 나왔고, 이들의 임시의정원 참여도 실현한다.

김봉준은 해방 후 신탁통치반대운동·남북협상 참석·남북 총선거 주장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노력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중 납북됐고 그해 9월 사망했다. 정부는 1989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1940년 재건된 한국독립당 요인의 기념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봉준, 지정천, 송병조, 조완구, 이시영, 김구, 유동열, 조소양, 차이석. (뒷줄 왼쪽부터) 엄항섭, 김의환, 조경환, 양우조, 조시원, 김학규, 고운기, 박찬익, 최동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커피 주문보다 쉬운 투자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 KODEX TRF 시리즈

TRF : Target Risk Fund

주식에 투자하되  
변동성 관리를 원한다면

**KODEX TRF 7030**



주식 반 채권 반 투자해  
투자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KODEX TRF 5050**



안정적으로  
금리 +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면

**KODEX TRF 3070**



### 세상 쉬운 KODEX TRF

#### KODEX TRF [Target Risk Fund] 란?

-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KODEX의 새로운 ETF입니다.

#### Q . KODEX TRF에 어떻게 투자하나요?

**A . 가까운 증권사나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2697호 (2019.07.05)

KODEX ETF는 주식거래와 똑같이 모든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 가능하며, 증권사 랩(WRAP)이나 은행 신탁상품을 통해 간접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KODEX 거래방법 및 상품문의 ☎ 080-377-4777, www.KODEX.com

이기는 투자  
삼성자산운용





소비자의 카트에 장성 포도를 담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

## 장성군, 지역 여름과일 소비 팔 건였다

‘엘로우시티 여름과일 컬렉션’ 열여섯 번째로 열리는 장성군 지역 여름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 건어붙였다. 장성군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 ‘엘로우시티 장성 여름과일 컬렉션’을 열고 여름과일 판촉행사와 장성 홍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관광객과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성의 여름과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성의 대표적인 여름과일인 수박, 복숭아, 포도, 플럼코트, 오디와 새싹삼의 효능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과 수변길과 출렁다리로 걷는 재미를 더한 장성호 등 장성의 관광 핫플레이스도 홍보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 전남도 ‘공인 글자체’ 알아보기 쉽게 교체

전남도는 기존 공인의 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여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모든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공인을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인 교체 대상은 총 935점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 대표 공인인 전남도지사 직인과 전남도지사 민원사무전용 특수공인 2점은 (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담현 전명옥 선생이 기증한 서체로 교체된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 경기도, 유망 창업기업 발굴·지원 나서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 실시 경기도가 ‘공정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에 참가할 예비·재창업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는 과거 UP창조오디션을 개편한 것으로,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는 물론,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가까지 육성·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선보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상금만 지급하던 단편적 지원방식에서 탈피,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과 해외 진출 기회까지 제공한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 강남 3구 재산세 6770억원 서울 25개 자치구의 37.6%

강북구 213억원, 1.2%로 최저  
강남구 2962억원과 14배 차이  
서울 주택·건물 재산세 1.8조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 3천(5.1%) 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 5천(6.2%) 건, 단독주택이 1만 3천(2.6%) 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 5천(2.8%) 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 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천 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광주 中企 40% “동반성장 여건 나쁘다”

2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130곳 조사  
동일하다 56.2%, 좋다 2.2% 그쳐

광주지역 중소기업 40% 가량은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이 여전히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분기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간 거래·동반성장 여건을 묻는 조사에서 ‘나쁘다’ 41.6%, ‘동일하다’는 56.2%로 응답한 반면, ‘좋다’는 2.2%에 그쳤다.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이 나쁘다고 응답한 주요원인은 ‘납품물량 감소’(50.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낮은 납품단가’(35.9%)가 그 뒤를 이었다.



12일 광주 하남산단에 소재한 삼성전자 ‘그린시티’를 방문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스마트공장 벤치마킹을 위해 냉장과 제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73.1%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력사들은 적절한 납품단가 책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50.0%)와 ‘원재료 등 재료비 변동분’(36.2%)이 반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반성장 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39.1%), ‘납품물량 보장’(34.0%), ‘중소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19.4%), ‘공정거래 준수’(7.1%) 순으로 나타났다. 마련돼야 될 정부 대책으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31.5%),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26.8%), ‘지역산업 다변화·신규 대기업 유치’(16.1%),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인식개선’(11.4%), ‘대기업 해외이전 방지’(11.4%) 등을 꼽았다. 지자체에는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경영난 해결지원, 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 “미세먼지 해결 된다면 연 14만원 부담 의향”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한해 13만8000원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시 551가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2025

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용의액은 경제학에서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는 2017년 기준 25 $\mu$ g/m<sup>3</sup>인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를 2025년까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보고서 총 가구 적용땀 연간 5407억 달해 지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간 권고 기준3(IT-3)인 15 $\mu$ g/m<sup>3</sup>까지 낮추기 위해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의미한다. 서울의 총가구 수를 적용하면 서울시민이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 낼 수 있는 총 지불용의액은 연간 5407억원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5일 (월)  
음력 : 6월 13일

수도권 날씨  
29 ~ 2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2 | 해짐 / 19:5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韓식품 세계시장 진출, 아이디어가 핵심

# 푸드 테크는 미래 주역... 적극 투자해야

## 축사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가짜고기’ 수요 늘고 ‘환자 맞춤형’ 주목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 필요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며 “이런 때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포럼에서 “최근 식품 업계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식품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푸드테크’가 주목 받고 있다. 미래 혁신 기술을 만난 식품들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면서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례로, 동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콩이나 버섯으로 만든 ‘가짜 고기’의 수요가 늘어났고, 당뇨 환자를 위한 대체 감미

료 등 ‘환자 맞춤형’ 분야가 주목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푸드 테크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개막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중후장대 위주의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푸드테크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규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포럼에서 “우리 사회에서 혁신 성장이 화두다. 성장을 멈춘 한국경제의 새 돌파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푸드 테크’가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단에서 개인별 맞춤형 식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혁명의 산물인 로봇, 빅데이터, AI를 푸드에 적용하는 실현적 비즈니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식품 배송분야까지 푸드테크의 영역이라고 정의하면 이 분야의 미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푸드 테크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이 대표는 국내 푸드 테크 산업이 성장 초기 단

계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혁신 성장 자금이 충분히 축적돼 있음에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바이오·반도체·IT·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등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고 기업 비전을 잘 설명하면 손쉽게, 몇 십억 심지어 몇 백 억대의 투자가 성사된다고 들었다. 일부에서 투자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면서 “이럴 때 그 많은 자금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푸드 테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 FFTK 2019 프로그램 강연자

## 식품업계,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장 필요한 곳

###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를 했다. 코카콜라는 설탕 대신 사용할 천연감미료를 찾았고, 카길은 차세대 감미료가 필요했다. 두 회사는 같이 했고, 트루비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상무)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혁신 이론이다”며 “식품업계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전했다.

윤 상무는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11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로 가속화를 꼽았다.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혼자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때 알맞은 파트너를 찾아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농산물업체인 카길사(社)의 트루비아를 예로 들며 “트루비아는 카길이 만든 스테비아(천연감미료)”라며 “카길은 코카콜라와 연구

윤 상무는 뷰카(VUCA) 시대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설명했다. 뷰카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약자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영환경을 뜻한다.

윤 상무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축적해 놓은 지식 등을 파트너와 나누고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파트너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을 파트너에 넘겨서 그로 인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백인웅 기자

## 혁신지향적 규제 당국이 발전의 밑거름

###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총괄본부장



제가 아니라 먹었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즉, 상징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층이 점차 성장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아시아태평양)은 미래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지향적 규제 당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신디 오우 총괄본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포럼에서 “지금은 현재와 미래 트렌드는 무엇이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디 오우 총괄본부장은 미래 식품 산업의 성공을 위해선 소비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소비의 주축인 밀레니얼 세대를 언급하며 “청년층의 경우, 한끼를 먹는 것이 문

식품 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한 식품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증명해 시장에 도입하고 있다.

그는 “식품 가공의 지속 가능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있다.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수용성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 예”라며 “이러한 제품의 안전함을 증명해 시장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순차적 승인을 받아나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파트너를 찾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 30兆 축산시장, 판매자-구매자 불신 없애야

###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 미트박스 대표이사



부분을 차용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 매일 3000여 종 이상의 아이템을 표와 그래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축산 시장은 약 30조 원 규모의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화된 시장이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포럼에서 “축산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가격 결정 매커니즘이 우리 상식과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축산물은 미래 식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자재로 대두된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 소비량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늘고 있다.

김 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병폐로 자리한 가격 정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미트박스’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트박스는 주식 시세에 나온

그는 “상품을 원시세대로 살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했다. 식당이나 정육점, 축산물 수입업체와 육가공장을 도매로 연결해 30% 마진을 끌어냈다”며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30만 박스 정도 규모에서 현재는 180만 박스까지 증가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늘면서 현재는 월 26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확보했고 계속 성장 중이다. 향후 미트박스는 금융적인 서비스를 확충하고 미트박스만의 물류 기능을 유지해 새로운 디바이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 간식도 똑똑하게... 빅데이터로 맞춤형 제공

### 이용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진 정도”라며 “그래서 소비자 구매 데이터와 상품 데이터 정보를 매칭해서 간식을 큐레이션(추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 코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스낵포의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스낵포’ 이용희 대표는 11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에서 “간식도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으로 구매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주어진 예산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최적의 간식을 원하는 장소,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는 것. 그것이 스낵포(Snack for)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이 대표는 “간식의 종류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다양해졌다”며 “수입 과자가 유입됐고, 기존 유명 회사에서 맛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기도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간식을 직접 맛보고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장 뒷면에 적힌 원재료와 제품 사

스낵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과자를 선택 배송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서 수십, 수백명 단위의 간식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 담당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대표는 “기존의 유통사, 제조사, 공급자 중심의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구매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큐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산업]**  
현대모비스  
운전자 부주의  
경보시스템 개발  
05



Life

**[마켓]**  
주식 손실나도 '세금'  
투자상품 포괄  
통합과세 필요  
08



# “식물성 단백질 대세... 향후 트렌드는 ‘개인 맞춤형’”

## FFTK 2019 기조강연

### 세스 배넌 ‘Fifty Years’ 창업자

‘음식=약’이라는 인식 강해져  
건강·맛·편리성 잡는 식품 요구  
유전자 조작으로 기능성 식품 개발



세스 배넌 ‘Fifty Years’ 창업자가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에 참석해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푸드테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세포농업(대체육) ▲유전자 조합 ▲로봇을 이용한 기술에 주목해야 하며 향후에는 ▲개인맞춤화에 초점을 뒀어야 할 것입니다.”

11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에서 실리 콘밸리 푸드테크 투자 전문기업 피프티 이어스(Founding Partner at Fifty Years) 창업자 세스 배넌(Seth Bannan) 대표는 미래 푸드테크 투자 트렌드와 식품시장의 흐름에 대해 발표했다.

세스 배넌은 최근 몇년동안 급부상하고 있는 ‘단백질’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댔다. “포털사이트 구글의 검색 트렌드를 살펴보면, 2004년은 ‘단백질’에 대한 검색량이 많지 않지만, 현재는 당시에 비해 두배 이상이다”라며 그중에서도 식물성 대체단백질을 강조했다.

실제로 식물성 대체단백질을 활용한 식품 카테고리 중 식물성 우유 판매량은 전체의 약 35%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식물성 유제품이 16%, 식물성 단백

질 기반의 대체육류가 13%로 판매량 순위가 높았다. 연간 판매 성장률은 식물성 유제품이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물성 식재료와 대체육류가 25% 가량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세스 배넌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연간 성장률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동물기반의 식품은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 대세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표적인 기업 비욘드미트(BEYOND MEAT)를 소개했다.

비욘드미트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버거 패티를 만드는 회사다. ‘올해 최고의 IPO상’을 받은 굉장한 기업이지만, ‘육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식물성 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비욘드미트의 소비자 대부분이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물성 고기가 채식자

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다수가 즐길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

세스 배넌은 최근 5년간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맛있고, 편리한 식품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알콜과 설탕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들을 대체하려는 재료 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식품이 곧 약품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식품과 약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어 떠오르는 푸드테크 기술로 ‘세포농업’ ‘곰팡이를 이용한 단백질 생성’ ‘유전자 조합’ ‘로봇을 이용한 기술’이 네 가지를 꼽았다.

세포농업을 다른 말로 하면 ‘대체육’ 즉, ‘배양육’이다. 가축은 사육과정에서 많은 사료와 물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많은 메탄가스를 방출한다. 결국 대

량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시스템은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육식에 대한 대안이 배양육인 것.

소나 닭 등의 동물에서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 배양액에 세포를 집어넣어 고기 조직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배양된 조직에 지방과 향, 기타 성분을 첨가하면 일반 고기와 같은 향과 식감을 갖추게 된다.

세스 배넌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M EMPHISMEATS’를 소개하며 “닭, 오리, 소, 생선 등 모든 고기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실제 고기와 맛이 똑같다”고 극찬했다.

‘제조플랫폼을 통한 미생물 발효’와 ‘유전자 조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세스 배넌은 이미 완성된 결과물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식의 GMO 식품에 대해 동의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베를린에 있는 실내농업 첨단 기업 ‘인팜(Infarm)’을 언급하며 “로봇의 자동화 기술을 통해 생산된 채소를 그 자리에서 구매하

는 곳도 있다. 로봇 기술은 푸드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트렌드로는 ‘개인 맞춤형’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스 배넌은 “음식은 약”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의사가 식단 처방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의사가 식단을 처방한다”며 “최근에는 디지털 푸드 여권도 생겨났는데,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재료에 대한 알리지 반응, 개인 유전자 지도까지 담겨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이 여권만 제시하면 알아서 음식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의 열쇠는 ‘조화’”

## FFTK 2019 패널 토론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열린 마음)’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의 마지막 순서였던 패널 토론에서는 ‘조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패널들은 푸드테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여는 ‘조화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스 배넌 피프티이어스(Fifty Years) 대표는 “투자자가 겁이 없고 스타트업이 올라가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흥미로운 투자에 대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투자자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도 투



1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19)’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아시아태평양 총괄본부장,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 센터장,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 세스 배넌 ‘Fifty Years’ 창업자. /손진영기자 son@

자자를 선택할 수 있는 쌍방향임을 기억해야 한다. 10년 이상 가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와의 조화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

장은 “전세계 198개 나라의 대표자들이 매년 국제 식품 규제 토론에 참가해 국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식품업계는 물론, 소비자, 학회,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스 배넌 역시 “기업가는 규제자를 적으로 보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규제는 사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친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야 시장 승인도 쉽다. 스타트업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편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관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 대표는 “축산업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문을 걸었고, 그 숙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처음부터 큰 걸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조금 가보고, 그 다음 다른 문을 열어보고, 그걸 해결하면 다른 문을 열어보는 식으로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용희 스낵포 대표는 “처음에는 넓은 시장에 괜찬은 기술로 접근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면 고객은 당연히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년 만에 실패를 경험했다”며 “그래서 주변의 문제들을 찾고, 그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해결된다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